

2015

GLOBAL HUNGER INDEX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험



2015

GLOBAL HUNGER INDEX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협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Klaus von Grebmer, Jill Bernstein, Nilam Prasai, Sandra Yin, Yisehac Yohannes

Concern Worldwide:

Olive Towey

Welthungerhilfe:

Andrea Sonntag, Larissa Neubauer

World Peace Foundation/Tufts University:

Alex de Waal

Bonn/Washington, DC/ Dublin

2015년 10월

A Peer-Reviewed Publication



CONCERN
worldwide



북부 이라크와 시리아 신자르(Sinjar) 산악지방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한 소년이 도훅(Dohuk)지역의 가건물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요들과 간이 매트리스가 포함된 겨울나기 키트가 전달되었습니다.

FOREWORD

2014년 1,300만 명의 사람들이 폭력사태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은 무력 충돌을 피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에서 피난난민이 되었습니다. 2014년 매일 평균 42,500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략 5,950만 명의 사람들이 무력 충돌과 박해 등을 피해 떠돌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입니다.

“분쟁의 함정”에 빠져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난다고 있습니다. 현재 갈 곳 잃은 난민들은 평균 17년이 넘는 세월을 난민캠프나 난민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국내 분쟁에 영향을 받은 40개 이상의 국가 대부분이 지난 30여 년간 이미 한 차례 이상의 내전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가들입니다.

무력 충돌은 인류의 복지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이거나 반복적인 무력충돌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동일한 경제수준에 있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보다 더 높은 비율의 영양부족과 유아사망률을 나타내며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Concern Worldwide, Welthungerhilfe 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2015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기아율은 4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79,500만 명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으며, 4명 중 1명 이상의 어린이가 성장부진을 겪고 있고 9퍼센트의 어린이들이 쇠약증이 있는 등 세계의 기아 수준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IFPRI가 GHI를 산출하고 이를 세계 기아의 다양한 척도로 분석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매년 발행되는 보고서들은 전 세계에 걸쳐 각 국가별로 기아의 상태를 추적하여, 긴급 구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국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줍니다.

GHI는 정부와 국제기관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만 산출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가 최신의 상황들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와 국제기관들이 협력 수준을 강화하며 세계 기아에 대해 보다 시기적절하고 완전한 데이터가 발표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심각한 기아가 지속되는 국가들과 지역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GHI가 집계되는 117개국 중 52개국은 기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기아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 충돌과 기아와의 상관성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World Peace Foundation의 사무총장이며 Tufts대학 연구교수인 Alex de Waal이 올해 기고한 논문에서는 지난 50년간 간과된 성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적인 기근”은 이전 종식된 듯합니다. De Waal 교수는 물리적 충돌과 기아의 연관성은 명백히 존재하지만, 현대 사회의 인도주의적 대응 덕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지역이 곧 극한의 기아상태인 기근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는 2030년까지 기아와 빈곤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DGs: Goal 2 “기아의 종식을 위한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에서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일년 내내 충분히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SDGs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무력충돌의 영향에서 더 잘 견디어내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SDGs가 단순히 영원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력충돌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과 맞서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켜 지구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에 극심한 영향을 주는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존의 무력 충돌 외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무력 충돌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난민 사태를 맞이한 이 때, 분쟁과 박해를 피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범세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높은 정치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Dr. Till Wahnbaeck
Secretary General and Chairperson
Welthungerhilfe

Dr. Shenggen Fan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Dominic MacSorley
Chief Executive
Concern Worldwide

CONTENTS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SUMMARY 5

CHAPTERS

01 세계기아지수의 개념 6

02 세계, 지역별, 국가별 동향 12

03 무력충돌과 기아의 위협: 끝이 보이는 싸움인가? 22

PARTNERS 30

SUMMARY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들의 기아 상황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5년 개발도상국들의 GHI는 2000년 대비 27퍼센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여전히 전 세계에 심각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IFPRI가 다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세계 기아를 평가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본 보고서의 GHI 지수는 전년도의 어린이 저체중 척도를 어린이 성장부진과 소아쇠약으로 대체하는 개선된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GHI 공식의 기아의 3가지 관점 중 하나였던 어린이 영양부족의 척도를 가장 적합한 지표들로 개선한 것입니다.

GHI 지수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GHI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즉, 기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입니다. 2000년 이후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역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2개국은 위험 내지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위험 단계의 GHI 지수를 나타내는 8개국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올해의 GHI에는 매우 위험 단계에 속한 국가가 없지만 높은 수준의 기아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수단,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등의 국가들이 최근 높은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해 2015 GHI 지수에 반영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서 2015년도까지, 17개국의 GHI는 5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10개국은 라트비아, 몽고,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절대적인 성과 측면에서 2000년과 2015년 GHI 지수를 비교했을 때 르완다, 앙골라, 이디오피아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HI 지수의 현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기아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2015년 GHI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들 즉, 최악의 기아 수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입니다. 특히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는 폭력적 분쟁과 정치적 불안 가운데 매우 높은 기아율을 보여줍니다. 무력 충돌과 기아는 매우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GHI 지수의 국가들은 이미 무력 충돌에 시달리고 있거나 최근 전쟁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World Peace Foundation의 사무총장인 Alex de Waal은 올해 기고한 논문에서 역사적으로 간과되었던 사실들을 게재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적인 기근은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기근이 훨씬 더 보편적이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 반세기 동안 이러한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1세기에는 약 60만 명이 가까운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준에 비해서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큰 고민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공산정권들의 붕괴, 국제인권규약의 채택, 그리고 세계화의 동참 등이 기근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6년 사상 최저를 기록한 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에 비해서 낮은 수치이지만 이는 전쟁과 기아를 종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의 기근은 복합적인 인도주의 비상상태로 대부분 무력 충돌로 의해 야기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은 정부군과 반군들의 충돌 뿐만 아니라, 불법 무장 단체와 종족 별로 이뤄진 민병대, 범죄단체, 용병, 그리고 국제적 세력까지도 포함한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들은 대부분 내전들로 점점 국경을 초월하는 사태로 확산되어 생계와 식량체계를 파괴시키고 난민을 발생시킵니다.

무력 충돌과 심각한 기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아는 피할 수 있으며 기아를 반드시 무력충돌의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앙적 기근들을 종식시킨 것은 대단한 업적이지만, 우리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고 만성적인 기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발전, 보다 개선된 식량정책, 갈등의 해소,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적 대응, 이 모두가 우리를 더 높은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무력 충돌이 감소 또는 종식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폭력적 분쟁의 직간접적인 피해자 모두의 필수적 요구와 권리가 충족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간의 우리의 모든 업적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01

남수단의 벤티우(Bentiu) 캠프에 있는 자국 내 난민들이 수수, 소금, 식용유, 유아식 등이 포함된 구호품을 보급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남수단 주민들이 무력 충돌 뿐만 아니라 식량을 구하고자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지수의 개념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GHI)는 기아의 정도를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별로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지수입니다.¹ 매년,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는 기아의 감소와 진행 정도, 심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GHI 지수를 산출합니다. GHI는 기아와의 싸움에 대해 지역과 국가간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세계적으로 기아를 줄여가는 행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BOX 1.1 기아의 개념

기아는 일반적으로 음식의 부족에서 오는 고통으로 이해됩니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는 음식물 섭취에 있어 결핍이나 영양 부족으로 인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필요한 일일 최소 권장 섭취에너지인 1,800 킬로칼로리조차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기아라고 정의합니다.¹

영양부족은 칼로리 개념을 넘어 에너지, 단백질, 필수비타민이나 미네랄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의 결핍을 말합니다. 영양부족은 양적, 질적으로 부적절한 음식물 섭취, 감염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영양의 저하, 또는 위의 모든 요인들의 조합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각 가정에서 벌어지는 불안정한 식량문제, 불안정한 산모의 건강이나 육아 활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식수, 위생 등의 부적당한 관리 등의 광범위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됩니다.

영양실조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영양부족(결핍의 문제)과 영양과다(불균형의 문제로 에너지 섭취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 미량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적게 섭취하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음)를 의미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기아”의 지수는 4개 부문의 지표들을 기반으로 나타냅니다. 각 부문의 지표들은 칼로리 부족뿐 아니라 미량 영양소의 결핍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GHI는 기아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합니다.

¹ FAO는 한 개인이 저장도 신체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최소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에 따른 인구 구성을 감안했습니다. 이 요구량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2014-2016년, 개발도상국의 일인당 하루 약 1,650에서 1,900 킬로칼로리 이상으로 계산했습니다 (FAO 2015). 저장도 신체활동에 대한 각 국가의 평균 최소 에너지 요구량은 영양결핍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FAO, IFAD, WFP 2015).

기아는 다차원적인 문제이며, 이런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Box 1.1). 기아의 다차원적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GHI는 아래 4개 부문을 조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산출합니다:

1. **영양결핍**: 인구 대비 영양 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 (불충분한 열량 섭취와 인구의 비중을 반영)
2. **소아쇠약**: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소모성의 소아쇠약 (급성적 영양실조로 인해 키에 비해 저체중을 보이는 증상)으로 고통받는 비율
3. **성장부진**: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성장부진 (만성적 영양실조로 인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증상)으로 고통받는 비율
4. **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률 (부족한 영양섭취와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의 치명적 시너지로 유발된다고 보임)²

이러한 다차원적 방식으로 기아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FIGURE 1.1). 이는 전체 인구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도 나타냅니다. 어린이는 인구 중 가장 취약한 이들로 식이 에너지, 단백질, 또는 미량영양소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가 부족할 경우, 각종 질환에 노출되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늦춰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랜덤한 측정이 가져올 수 있는 오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독립적으로 측정된 지표를 결합했습니다.³

올해의 GHI 지수는 개정된 방식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습니다 (Box 1.2). 아동 저체중 실패가 아동 영양부족의 유일한 지표로 사용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소아쇠약과 성장부진을 두 가지 지표로 사용합니다. 올해 GHI 지수는 이 두가지 지표가 동등하게 반영되어 산출됩니다.

2015년 GHI는 네 가지 정보 모두 적절한 수집이 가능하며 또한 기아의 심각성을 반드시 측정해야만 할 117개국에서 산출되었습니다. 기아율이 낮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GHI 지수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GHI는 네 개 부문 지표에 대해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올해의 GHI 지수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의 국가별 최신 정보와 예측을 반영합니다. 즉, 2015년 한 해의 상황들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의 전반적 실태를 조망한 것입니다.⁴

¹ GHI 개념에 대한 참고 자료는, Wiesmann (2004) and Wiesmann, von Braun, and Feldbrügge (2000)을 참조하십시오.

² 최근 추산에 의하면,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의 원인의 45%가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Black et al. 2013).

³ 빈곤의 다면적 측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he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에 의해 개발된 인덱스를 참조하십시오 (Alkire and Santos 2010).

⁴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의 2014~2016년 전망을 포함한 최신 영양결핍 추정자료가 2015년 GHI 지수 (FAO, IFAD, WFP 2015)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FIGURE 1.1 세계기아지수의 양상

세 가지 측면	네 가지 지표	가중치	포함 이유
불충분한 식량 공급 FAO	영양결핍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의 중요 지표로 불충분한 식량공급 측정 가능 → 어린이와 성인, 인구 전체를 반영 → 국제 기아 목표의 주요 지표로 사용
어린이 영양부족 UNICEF WHO WORLD BANK	소아쇠약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로리 소비 차원을 넘어 음식의 질과 활용의 측면을 고려 → 특히 영양결핍에 취약한 어린이가 고려됨 → 가장 타격받기 쉬운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균형적 음식공급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 성장부진과 소아쇠약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을 위해 제한된 영양 지표임
	성장부진	1/6	
유아 사망률 IGME	5세 미만 사망률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은 기아의 가장 심각한 결과이며, 어린이가 가장 취약한 대상임 → 미량영양소들의 결핍을 반영하여 GHI 지수의 역량을 향상 → 소아쇠약과 성장부진은 영양실조의 치명적 위험을 보여주는 단면임

출처: Wiesmann et al. (2015).

주석: 각 지표는 표준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어린이 영양결핍 지표들은 추가 출처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쓰인 모든 영양결핍 정보 출처의 리스트를 보려면 10-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남수단, 뉴기니, 수단, 시리아, 에리트레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영양결핍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GHI 지수를 산출하지 못했습니다.⁵

지수들은 UN이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편집, 업데이트하는 데이터에 기초하며, 매해 GHI 보고서는 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개선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매해 기준이 달라지므로 각 년도의 GHI 지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된 새로운 공식으로 생산된 결과를 이전 GHI 보고서들의 지수들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보고서는 2015년과 네 개 참조 연도-1990, 1995, 2000년, 2005년-의 GHI 지수를 포함하고 이 모든 지수는 새롭게 개정된 공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덕분에 기아 수준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보고서는 2015년 GHI 지수의 1990, 1995, 2000, 2005년 네 가지 지표들의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었습니다.⁶

⁵ FAO는 2011년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수준 영양실조 평가 공표를 중단했습니다(FAO, IFAD, WFP 2011). 과거의 GHI 보고서들에 의하면 콩고민주공화국의 GHI 지수는 가장 높은 기아 상태인 매우 위험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2011년 독립한 남수단과 현재의 수단의 영양결핍 추정자료는 FAO (FAO, IFAD, WFP 2015)로부터 얻지 못했습니다.

⁶ 이전 GHI 산출물을 보시려면, von Grebmer et al.을 참조하십시오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IFPRI/Welthungerhilfe/Concern(2007); Wiesmann (2006a, b); and Wiesmann, Weingärtner, and Schöninger (2006).

BOX 1.2 GHI 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GHI 지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우선, 네 개의 지표에 대한 각각의 수치는 각국의 가용한 정보들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네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양결핍 인구의 비율
- 소아쇠약 (신장에 비해 저체중)으로 고통 받는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비율
- 성장부진 (나이에 비해 작은 키)으로 고통 받는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비율
- 5세 이전 사망하는 어린이들의 비율 (유아 사망률)

두 번째, 네 개 지표 각각은 1988년에서 2013년까지 세계적으로 관찰된 가장 높은 국가 수준보다 다소 높게 설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표준화합니다.¹ 예를 들면 영양결핍 부문 최고 수치가 76.5퍼센트라면 표준화를 위해 조금 높은 80퍼센트로 정해집니다.² 만약 어떤 해의 국가의 영양결핍 상태가 40퍼센트라면 그 해 표준화된 영양결핍 수치는 50으로 정해집니다. 즉, 해당 국가는 영양실조가 전혀 없는 상태와 관찰된 최고 수치의 중간쯤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준화된 지수들은 각 국가의 GHI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집계됩니다. 영양결핍과 유아 사망률은 GHI 지수의 가중치가 각 1/30이고, 어린이 영양실조 지표인 소아쇠약과 성장부진은 가중치가 각 1/6입니다.

이 계산법은 GHI 지수를 100점 만점 단위로 했을 때, 0이 가장 좋은 지수이고 (기아율 0)이고 100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양 극단을 나타낸 경우는 없습니다. 100이란 의미는 한 국가가 영양결핍, 소아쇠약, 성장부진, 유아 사망률에서 최근 수십 년간 관찰된 자료들의 최고 수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설정된 한계 수치에 각각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은 해당 국가의 인구에서 영양결핍인 사람이 전혀 없고, 5세 미만 어린이 중 쇠약하거나 성장부진한 아이도 없으며, 5세가 되기 전 사망하는 어린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등급은 기아의 심각성 정도를 낮음에서 매우 위험까지 -개정된 공식을 사용해 산출된 GHI에 연계해 표시한 것입니다.

STEP 1 구성 요소의 지표수치를 결정:

- PUN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is undernourished 영양결핍인 사람들의 비율 (%)
- CWA prevalence of wasting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old 5세 미만 소아쇠약을 앓는 어린이들의 비율 (%)
- CST prevalence of stunting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old 5세 미만 성장부진을 앓는 어린이들의 비율 (%)
- CM proportion of children dying before the age of five 5세가 되기 전 사망하는 어린이들의 비율 (%)

STEP 2 구성 요소 지표를 표준화:

$$\text{표준화된 PUN} = \frac{\text{PUN}}{80} \times 100$$

$$\text{표준화된 CWA} = \frac{\text{CWA}}{30} \times 100$$

$$\text{표준화된 CST} = \frac{\text{CST}}{70}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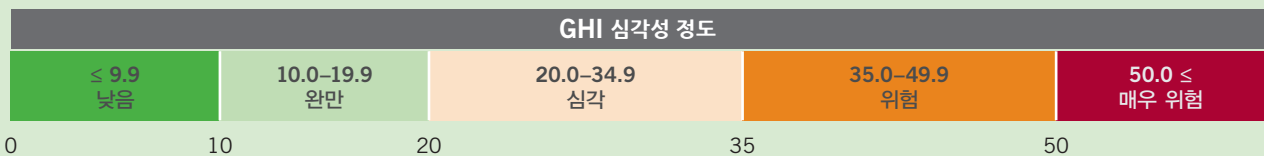
$$\text{표준화된 CM} = \frac{\text{CM}}{35} \times 100$$

STEP 3 구성 요소 지표를 집계:

$$\begin{aligned} & \frac{1}{3} \times \text{표준화된 PUN} \\ & + \frac{1}{6} \times \text{표준화된 CWA} \\ & + \frac{1}{6} \times \text{표준화된 CST} \\ & + \frac{1}{3} \times \text{표준화된 CM} \\ \hline & = \text{GHI 지수} \end{aligned}$$

¹ 표준화를 위한 한계치가 미래의 수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 관찰 수치보다 조금 높게 설정됩니다.

² 영양실조에 관한 한계치는 관찰된 최고 수치 76.5퍼센트에 기초하여, 80으로; 어린이 소아쇠약은 최고 수치가 26.0퍼센트이므로 30으로; 어린이 성장부진은 최고 수치가 68.2퍼센트이므로 70으로; 그리고 어린이 사망률은 32.6퍼센트이므로 35로 부여하였습니다.



BOX 1.3 세계기아지수가 개정된 이유

세계기아지수(GHI)는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와 Welthungerhilfe에 의해 2006년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¹ 이후 매년 업데이트된 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GHI 지수는 아래의 세 개의 비표준화 지표를 동일한 가중치로 산정하였습니다.

1. 영양결핍 인구의 비율
2. 5세 미만 저체중 어린이들의 비율
3.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올해에는 영양측정에 대한 최신 의견과 실제 사례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 저체중을 소아쇠약과 성장부진으로 대체하고 개정된 공식들을 통해 각 부문 지표들을 (Wiesmann et al.2015) 표준화시켰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 저체중 비율은 이전에 어린이 영양결핍의 대표적 지표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체중은 어린이 영양결핍을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그 효용성이 의심되었습니다. 어떤 경우, 성장부진을 앓으면서도 정상 체중이거나 심지어 과체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rtorell 2008). 이러한 가정하에 단순히 저체중만을 평가하는 것은 어린이가 만성적 영양결핍의 표시인 성장부진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치 못한 채 영양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GHI에 좀 더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어린이 저체중은 소아쇠약과 성장부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른 부문 지표들—영양실조와 유아 사망률—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과거의 지수들은 GHI의 부문 지표들을 표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양결핍과 성장부진의 수치들은 유아 사망률과 소아쇠약보다 보편적으로 높게 나왔고 여러 국가간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어떤 국가가 10퍼센트의 유아 사망률과 50퍼센트의 영양결핍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유아 사망률이 5퍼센트로 감소하고 영양결핍률이 45퍼센트로 감소한다면, 각 지표상 절대적으로 5퍼센트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과거 GHI 산출 방식은, 두 개의 변화들이 GHI 지수에 동일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영양결핍 지표는 유아 사망률 지표보다 보통 더 값이 높고, 등락도 심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 5퍼센트 감소가 사실상 더욱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공식에선 표준화된 수치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아 사망률 5퍼센트 감소는 GHI 수치 산출에서 같은 감소 수치를 보인 영양결핍 부문보다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4개 부문 지표들의 수치를 표준화함으로써 GHI 지수가 어느 특정 연도나 기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¹ Concern Worldwide는 2007년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원천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지역들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GHI 부문 지표들의 추정 수치를 산출했습니다 (1990, 1995, 2000, 2005, 2015년 GHI 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고하십시오). 본 보고서의 GHI 지수의 산출을 위해 사용된 4개 부문 지표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결핍: 1990, 1995, 2000, 2005, 2015년 GHI 지수를 위해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FAO)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2015년 GHI의 영양결핍 정보와 예측들은 2014–2016년 (FAO 2015; 저자의 추정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소아쇠약과 성장부진: GHI의 어린이 영양부족 지표들— 소아쇠약과 성장부진—은 UNICEF,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World Bank의 공유 데이터와 어린이 성장과 영양실조에 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WHO의 Global Database 정보,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DHS)와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의 보고서들, UNICEF의 통계자료들, UNICEF 인도의 가장 최근의 국가 조사 자료를 포함합니다. ⁷ 2015년 GHI를 위해 2010–2014년 기간 (UNICEF/WHO/World Bank 2015; WHO 2015; UNICEF 2015a; UNICEF 2013; UNICEF 2009a; MEASURE DHS 2015; India, 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 UNICEF 2014; 저자의 추정 자료들)의 가장 최신 자료가 소아쇠약과 성장부진 지표들의 정보로 사용되었습니다.

⁷ 인도의 최근 어린이 성장부진과 소아쇠약 정보들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유아 사망률: 1990, 1995, 2000, 2005년, 2015년 GHI 지수 산출을 위해 UN 유아 사망률 추정을 위한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의 업데이트된 자료가 사용되었습니다. 2015년 GHI는 2013년 (IGME 2014) 유아 사망률이 사용되었습니다.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아와 영양결핍에 관한 핵심적 통계들을 보고하는 데에는 시간 지체와 정보의 부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여러 방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2016년에 대한 영양실조 예측이 가능해졌음에도, 좀 더 신뢰성 높고 광범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기아와 영양부족에 대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세계 기아에 대해 보다 완성도 있는 최신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세계 기아를 종식시키는 가이드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2명의 시리아 쿠르드족 소녀들이 빵을 들고 도미즈(Domiz) 난민캠프에 있는 자신들의 텐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위치한 시설로, 시리아-이라크 국경에서 6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세계, 지역별, 국가별 동향

2000년부터는 기아와의 싸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¹ 2015년 GHI 지수는 21.7로 2000년 개발도상국 GHI지수 29.9와 비교하여 27퍼센트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FIGURE 2.1). ² GHI 지수가 높다는 것은 기아율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0.0에서 34.9 사이는 심각 단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GHI는— 세계 지수에도 참조 되었습니다— 2000년 2015년 모두 심각 단계에 있지만, 앞의 수치는 위험 단계에 가깝고 후자의 지수는 완만 단계에 가깝습니다. CHAPTER 0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GHI 산출은 이 보고서의 1990, 1995, 2000, 2005년 참조 연도들을 포함한 개정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도 이 변화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 GHI에는 기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의 추정에 따르면 2014–2016년 사이 세계 인구 9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총 79,500 만 명이 만성적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FAO, IFAD, WFP 2015). 2013년엔 어린이 4명 중 1명인 16,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장 부진을 앓고 있고 5,100만 명이 소아쇠약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UNICEF 2015b). 또한 매년 약 310만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Black et al. 2013).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거나 위험 단계의 기아율을 가진 국가가 산재하고 해당 국가의 특정 지역에 만연한 불균형적인 기아, 또는 유아 때의 영양실조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할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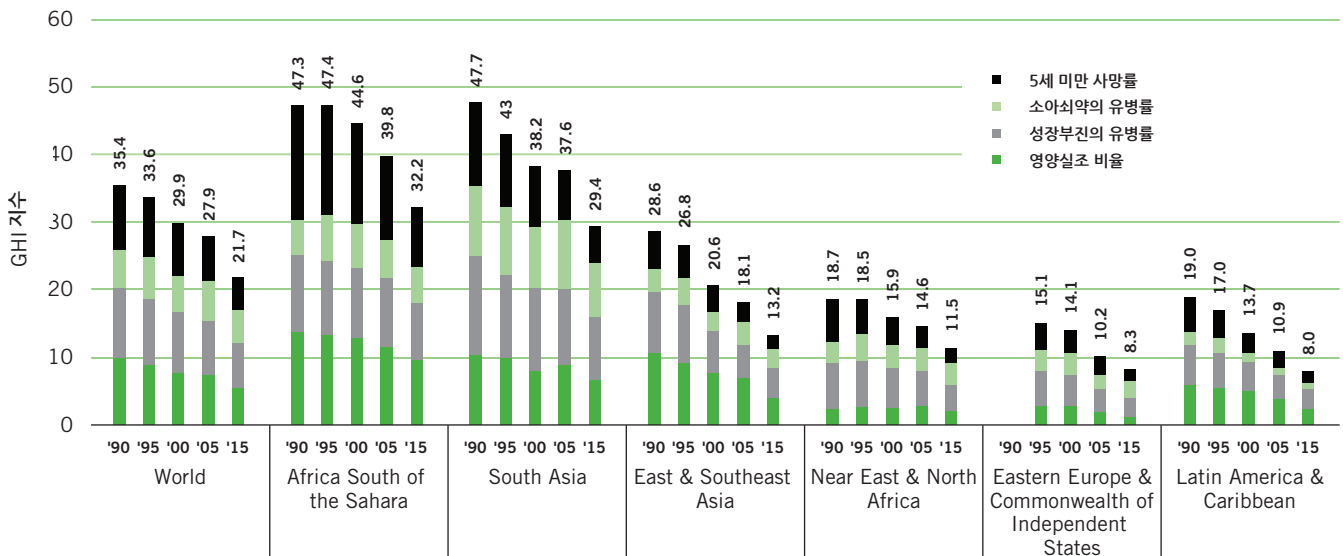
개발도상국들에서 4개 부문 지표들은 (영양결핍, 성장부진, 소아쇠약, 유아 사망률) 2000년 이후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모두 감소했습니다. 영양결핍 인구비율은 18.5퍼센트에서 13.1퍼센트로 29퍼센트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성장부진은 2000년 이래 37.5퍼센트에서 28.2퍼센트로 25퍼센트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소아쇠약은 9.8퍼센트에서 8.8퍼센트로 10퍼센트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8.2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40퍼센트 감소했습니다. ³

¹ 이전 GHI 보고서들은 1990년 기아 수준과의 비교에 집중하였으나, 올해는 2000년 기아 수준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1990년에서 2015년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자료와의 비교가 보다 최신의 추이를 반영합니다.

² 각 부문 지표들을 위한 지역 및 세계적 집계는 부록 B에 보고된 지표 수치를 이용, 인구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부룬디,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에리트레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지역 영양결핍 추정 수치들은 세계적, 지역적 종합 수치를 위한 계산에만 쓰였으며, 부록 B에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 수치들은 기존에 발행된 영양실조 정보, 그리고 오로지 지역 및 세계적 통합 수치들을 내기 위해 2014년 FAO에 의해 생산된 잠정적 추정수치들에 기초합니다. 지역적 세계적 GHI 지수들은 각 부문마다 계산되는 지역적 세계적 종합치들을 사용해 계산되며 CHAPTER 01에 서술한 개정된 공식을 사용해 산출합니다.

³ 위 단락의 추정 수치들은 GHI 수치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참조했습니다. 이 추정 수치들은 서로 다른 국가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이 발표한 수치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FIGURE 2.1 개발도상국과 지역별 1990, 1995, 2000, 2005, 2012년 세계기아지수들 그리고 각 부문들의 구성



주석: 많은 국가들의 국경상태가 현재와 달랐기 때문에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의 1990년 지역 지수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지역적 차이들

세계 평균치는 지역 간, 국가 간의 극적이라 할 만큼 큰 차이들을 가려버리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각각 32.2와 29.4로 가장 높은 GHI를 나타냅니다. 모두 심각 단계의 기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근동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은 8.0에서 13.2에 이르는 낮은 혹은 완만 단계의 기아수준을 보입니다.

절대적 수치 변화로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각 12.4와 8.8포인트로 감소되는 매우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2000년 이래 7.4포인트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GHI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근동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은 2000년 기준 이미 최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더 분발해 4.4에서 5.8포인트에 이르는 감소를 이뤄냈습니다.

2000년 이후 GHI 비율 변화로 비교해보면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두 지역들은— 40퍼센트 이상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36퍼센트 감소로 바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근동, 북아프리카는 2000년 이래 28퍼센트의 감소, 남아시아는 23퍼센트의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율이 1990년에서 1995까지 별다른 감소없이 침체기를 겪다 2000년 이후 다른 지역들과 견줄 만한 감소를 이뤄낸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남아시아의 GHI 지수는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완만 단계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정체기를 지나 2005에서—2015년 기아지수가 다시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남아시아 인구의 3/4이 살고 있는 인도의 GHI 추세와 비슷합니다. 최근 인도에서 전개된 어린이 영양부족과의 전쟁이 성공한 것이 남아시아 GHI 지수가 2005년 이후 8포인트 이상 하락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05—2006년에서 2013—2014년 사이 어린이 소아쇠약이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감소되었고, 성장부진은 같은 기간 48퍼센트에서 39퍼센트로 감소되었습니다 (IPS and Marco International 2007; India, 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 and UNICEF 2014).⁴

인도정부는 지난 10년 간 (1) 인도 어린이들의 보건, 영양, 성장 향상을 목적으로 통합어린이성장프로그램(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program)의 추진 (2) 인도 지방지역 (Avula et al. 2013)에 필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한 실행계획인 National Rural Health Mission의 창설을 포함하여 영양 개선을 위해 적극적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영양부족이 감소되는 진행상태는 인도 전 지역에 걸쳐 지역간 격차를 보입니다. 성과 혹은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성적 영양실조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한 요인은 아외 배변으로 이러한 비위생적인 행위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게다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가 여성의 건강과 영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체중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되기도 합니다 (Economist 201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2015년 GHI 지수는 32.2로 최고치를 나타냅니다.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UNCTAD 2014) 이루었습니다. 이는 HIV/AIDS의 감염의 감소, 향상된 치료, 말라리아 감염 및 사망자의 감소 등을 이뤄낸 공중보건의 발달 덕분입니다 (AVERT 2014; WHO 2013). 르완다, 앙골라,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동안 대규모 내전이 종식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보다 안정적이 되었고 기아율은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 같은 나라들은 최근 더욱 내전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또한 높은 수준의 기아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기아의 원인들은 복합적이어서 단지 내전만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높은 기아수준은 지역 및 국가들에게 여전히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는 농업과 영양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지역 최극빈층의 9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 2/3 이상의 지역 인구가 농업에 소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O' Sullivan et al. 2014). 그러나 이 지역 농업생산성은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대륙 전체에 걸쳐 생태 조건과 사회적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해결책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아퇴치를 위해 우리 모두는 식이의 다양화, 지속가능한 환경,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합니다.

⁴ 2013—2014년 인도 어린이 성장부진과 소아쇠약은 잠정적인 것으로 2014년 인도의 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와의 개별연락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FIGURE 2.2 GHI 지수감소의 국가별 진전상황

2015 GHI와 2000 GHI 비교



국가별 최고 및 최악의 결과

2000년에서 2015년 동안 GHI는 17개국의 GHI 지수들이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 감축해내는 놀라운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FIGURE 2.2). 68개국은 25~49.9 퍼센트 감소, 28개국은 GHI 지수를 25퍼센트 이하로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52개국은 여전히 심각 혹은 위험 단계의 높은 기아수준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가장 크게 GHI 지수 감소를 이룬 10개국 중 3개국은 남미(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에 위치하고, 1개국은 아시아(몽고), 4개국은 구 소비에트연방(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이었고, 2개국은 구 유고슬라비아연방(보스니아, 크로아티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이 나라들의 GHI 지수들은 -2000년 GHI 이후 53~71퍼센트의 큰 감소률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은 2000년 GHI 지수 대비 약 2/3의 감소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성과는 일부의 원인이 불사 패밀리(Bolsa Familia)-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를 포함한 정부의 제로 허unger(Zero Hunger)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불사 패밀리 프로그램은 브라질의 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건강관련 활동에 참여시키고, 임신 및 수유 여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양 부분의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Rasella et al. 2013). 제로 허unger 프로그램은 농장들을 지원하고 과일과 채소들의 활용을 늘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Rocha 2009).

브라질은 2015년까지 빈곤과 영양실조를 1/2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를 더욱 앞당겨 2009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식단의 질, 과체중, 비만 등이 당면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페루는 2000년 GHI 지수를 56퍼센트나 줄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는 명성 외에도 (World Bank 2015b) 기아와 영양부족과 싸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Gillespie et al. 2013). Alan Garcia 대통령은 2006년에서 2011년간 재임기간 동안 Initiative against Child Malnutrition(IDI)과, 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광범위 연대에 의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공약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당선 시 재임 5년간 성장부진을 최소 5퍼센트 포인트 줄인다는 공약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lan Garcia 대통령은 2006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여러 부문의 의제를 세워 성장부진을 18퍼센트로 거의 10퍼센트 감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Acosta와 Haddad 2014). 빈곤 퇴치의 서약을 하며 2011년 취임한 Ollanta Humala 대통령은 국가적 성장전략을 실행하고, 영양부족을 포함한 문제들의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의 53개 표본국들 중 페루는 어린이 영양부족 수준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위치와 밀접히 연관되는 나라로 주목되었습니다 (Bredenkamp, Buisman, and Van de Poel 2014).

몽고 또한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56퍼센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몽고는 해당 기간 동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절의 짧은 침체를 제외하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광업 및 채석업을 통해 급상승한 수익으로 이룬 경제 성장과 영양부족 퇴치를 (UNICEF 2009b) 위한 종합적인 영양 전략을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이상적 조합 덕분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빈곤과 기아 수준의 감소, 그리고 모든 GHI 부문 지수들의 감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몽고의 시골 지역, 특히 몽고의 가혹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취약한 소규모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영양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ongolia 2013).

과거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특정한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구소비에트 연방 및 유고연방이었던 여러 나라들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험난한 길을 걸었고, 1990년대 모두 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들 국가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심각한 타격을 주기 전까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들 국가는 2008년 경제 침체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국가는 경제 성장을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Roaf et al. 2014).

이들 각 국가들에 있어서 거시경제성장, 빈곤, 기아 수준의 상관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몇 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석유 수익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며, 공공재에 투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은 국가수익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UNDP 2012). 우크라이나도 2000년 이후 GDP가 늘어나면서 빈곤과 기아가 감소되었으나, 기아와 빈곤에 취약한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심각한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국(Ministry of Economy) 2010). 또한 2013에서 2015년 초반까지 진행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가의 식량부족을 가져왔습니다 (Lambers 2015; WFP 2015a). 이로 인해 향후 기아 수준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000년 이후 르완다, 앙골라,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국가별 GHI 지수가 25에서 28 포인트 사이의 감소를 보이며 기아율을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기아율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GHI 대상 국가 가운데 르완다, 앙골라, 에티오피아는 2000년도에 (각 58.5, 58.3, 58.6) GHI 지수가 가장 높고, 이는 놀라운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아율이 (30.3, 32.6, 33.9) 왜 여전히 높은지 설명해줍니다. 이들 국가를 역시 여전히 내전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기아율이 내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전이 이들 국가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 근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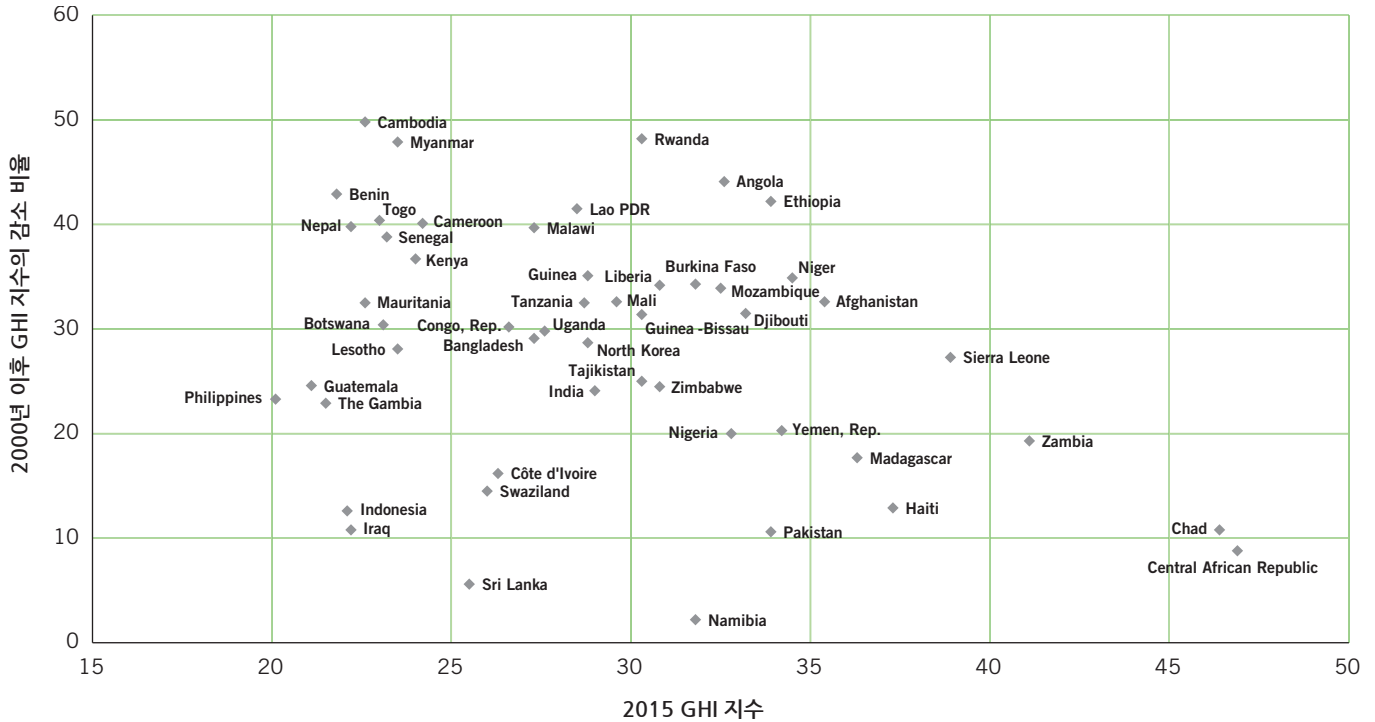
르완다는 1994년 최악의 내전으로 불리는 대학살(1990년에서 1993년간) 이후 빈곤과 기아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내전 후 르완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합적 정책들을 계획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해 특히 2005-2006년 (UNDP 2015) 이후 국가총생산(GDP)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을 이루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0-2011년 조사에 의하면 르완다의 유아사망률은 2013년 5.2퍼센트로 감소되었고, 소아사망은 3퍼센트 감소해 극심했던 영양실조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장부진은 여전히 높아 44.3퍼센트에 이릅니다.

앙골라 역시 내전의 상처로부터 회복 중입니다.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을 2002년에야 끝냈습니다 (World Bank 2015a). 내전이 끝난 후 특히 증가된 석유 수익에 힘입어 GDP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양결핍은 1990-1992년 63.5 퍼센트에서 2014-2016년에 14.2퍼센트로 감소하였습니다 (FAO 2015). 그러나 유아 사망률은 2013년도에 16.7퍼센트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앙골라의 문제는 식량부족이 아니라 영양가가 너무 적은 식단에 의존하는 탓에 결과적으로 어린이 영양부족과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McClelland and Soque 2015).

에티오피아는 1974년에서 1991년 사이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내전들로 인한 기근,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기근인 1983-1985년의 대기근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기근들로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Africa Watch 1991; von Braun과 Olofinbiyi 2007). 이러한 기아상태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있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계속되는 가뭄과 인구 대다수가 일정한 강수량이 필수적인 농업 즉 생산성이 매우 낮은 식량공급체계에 심하게 의존하는 이유로 여전히 식량안전성 면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USAID 2014).

단 하나의 국가, 쿠웨이트만이 2001년에서 2015년간 GHI 지수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4.2에서 2015년 5.0점으로의 증가폭은 매우 미미한 것이고 쿠웨이트의 기아율은 여전히 심각도가 낮은 단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쿠웨이트의 2015년 5.0 기아 지수는 1990년 24.3(심각 단계), 1995년 16.1(완만 단계)에 비해 볼 때 극적인 성취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990년과 2014년의 지수를 비교한 2014년 GHI 보고서에서 쿠웨이트는 최고 성적을 낸, 즉 가장 큰 폭의 감소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쿠웨이트의 1990년 비정상적으로 높은 GHI 지수는 걸프전쟁을 촉발시킨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기인합니다. 쿠웨이트 GHI 지수의 변화 추이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FIGURE 2.3 2000년 이후 국가별 동향



주석: 도표에 포함된 국가들은 2015년 계산으로 GHI가 20이나 그 이상으로 심각 단계이거나 위험 단계의 나라들입니다. 정보 수집이 가능한 나라들에서만 GHI 지수가 산출되었습니다.

8개국은 여전히 위험 단계의 기아수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범주 대부분 국가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동티모르, 아이티, 아프가니스탄만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전의 공식으로 산출된 지난해 GHI 보고서는 부룬디와 에리트레아 두 국가가 매우 위험 단계라고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영양결핍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산출되지 못했습니다만 이들 국가는 여전히 기아율이 극도로 높은 곳들이라 추정됩니다.

2015년 GHI지수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이 보고서의 참조년도들인-1990, 1995, 2000, 2005년도의 매우 위험 단계의 한계값을 넘었으나 2015년에는 어떤 국가도 매우 위험 단계에 (GHI 점수 50이나 그 이상)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참조년도인 2000년을 보면 매우 위험 단계의 기아율을 보인 국가들은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 덜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은 우리가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증거입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잠비아는 2015년 가장 높은 GHI 지수를 나타냈으며 2000년 이후 기아수준의 감소를 부분에서도 가장 낮은 성과를 낸 국가들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FIGURE 2.3).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과 독재정치, 그리고 계속되는 쿠데타로 줄곧 고통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내전으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국민의 약 20 퍼센트 이상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차드 역시 최근 수십 년 동안 주변 국가와의 분쟁, 그리고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인접국들로부터의 난민 유입 등의 이유로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IDMC 2014). 반면에 잠비아는 상대적으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경제의 대부분을 구리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잠비아를 “자원의 저주”에 관한 표본이라 지칭합니다 (Boos와 Holm-Müller 2015). 자원의 저주 이론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가 성장 둔화 뿐 아니라 (Sachs and Warner 2001) 사회 불평등과 빈곤에도 시달린다고 가정합니다 (Humphreys, Sachs, and Stiglitz 2007).

GHI 구성 요소의 관점으로 볼 때, 아이티, 잠비아, 그리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인구 48퍼센트에서 53퍼센트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부룬디, 에리트레아는 5세 미만 어린이들의 50퍼센트 이상이 성장부진 (나이에 비해 작은 키)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남수단, 스리랑카, 지부티는 5세 미만 어린이의 소아쇠약(키에 비해 저체중) 비율이 21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앙골라, 시에라리온, 차드는 15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가장 높은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을 갖고 있습니다.

TABLE 2.1 순위별 각국의 세계기아지수, 1990 GHI, 1995 GHI, 2009 GHI, 2005 GHI, 2015 GHI

Rank	Country	1990	1995	2000	2005	2015	Rank	Country	1990	1995	2000	2005	2015																																																																																																											
1	쿠웨이트	24.3	16.0	<5	<5	5.0	62	토고	42.5	44.1	38.6	36.4	23.0																																																																																																											
2	사우디아라비아	15.8	14.3	10.4	11.8	5.1	63	보츠와나	31.3	34.3	33.2	31.2	23.1																																																																																																											
2	터키	14.5	13.4	10.5	7.6	5.1	64	세네갈	36.8	36.9	37.9	28.5	23.2																																																																																																											
4	슬로바키아 공화국	-	8.2	8.0	7.4	5.2	65	레소토	25.8	28.5	32.7	30.2	23.5																																																																																																											
5	루마니아	9.1	9.6	8.6	6.1	5.3	65	미얀마	56.3	53.3	45.1	37.4	23.5																																																																																																											
6	튀니지	11.5	14.2	8.9	6.7	5.6	67	케냐	34.8	40.0	37.9	36.6	24.0																																																																																																											
7	우루과이	12.2	9.4	7.6	8.1	5.7	68	카메룬	39.8	43.7	40.4	34.0	24.2																																																																																																											
8	요르단	12.8	10.5	9.8	6.5	5.8	69	스리랑카	31.3	29.7	27.0	25.9	25.5																																																																																																											
9	마케도니아	-	11.2	7.9	8.6	5.9	70	스와질란드	22.8	25.8	30.4	27.4	26.0																																																																																																											
10	레바논	12.1	9.4	9.0	10.4	6.4	71	코트디부아르	33.8	32.1	31.4	32.7	26.3																																																																																																											
11	러시아	-	11.7	10.4	7.2	6.6	72	콩고	38.9	41.1	38.1	33.5	26.6																																																																																																											
12	이란	18.5	16.5	13.7	9.5	6.8	73	방글라데시	52.2	50.3	38.5	31.0	27.3																																																																																																											
13	베네수엘라	16.3	15.3	15.2	13.1	7.0	73	말라위	58.9	55.9	45.3	39.1	27.3																																																																																																											
14	세르비아	-	-	-	-	7.1	75	우간다	39.8	40.9	39.3	32.2	27.6																																																																																																											
15	멕시코	16.8	16.9	10.8	8.9	7.3	76	라오스	52.9	51.1	48.7	36.9	28.5																																																																																																											
16	카자흐스탄	-	15.4	10.7	12.3	8.0	77	탄자니아	42.2	45.2	42.5	36.4	28.7																																																																																																											
17	자메이카	12.5	10.7	8.8	8.2	8.1	78	기니	47.8	45.8	44.4	38.0	28.8																																																																																																											
18	트리니다드토바고	13.7	14.7	12.3	11.4	8.3	78	북한	30.1	35.9	40.4	32.4	28.8																																																																																																											
19	불가리아	8.1	10.2	9.4	9.2	8.5	80	인도	48.1	42.3	38.2	38.5	29.0																																																																																																											
19	조지아	-	31.8	15.2	10.2	8.5	81	말리	51.9	51.3	43.9	38.3	29.6																																																																																																											
21	중국	25.1	23.2	15.9	13.2	8.6	82	기니비사우	46.1	42.1	44.2	41.8	30.3																																																																																																											
22	알제리	17.1	18.0	14.8	12.2	8.7	82	르완다	53.9	66.3	58.5	44.5	30.3																																																																																																											
22	피지	12.5	11.2	10.1	9.3	8.7	82	타지키스탄	-	40.3	40.4	36.5	30.3																																																																																																											
24	콜롬비아	16.7	13.0	11.4	10.7	8.8	85	라이베리아	54.4	55.2	46.8	41.5	30.8																																																																																																											
25	몰도바	-	16.0	15.3	15.7	9.1	85	짐바브웨	33.3	38.1	40.8	39.2	30.8																																																																																																											
25	페루	30.7	25.0	20.9	18.8	9.1	87	부르키나파소	53.0	46.1	48.4	49.6	31.8																																																																																																											
27	키르기스스탄	-	24.1	20.2	14.3	9.4	87	나미비아	35.8	37.0	32.5	28.8	31.8																																																																																																											
28	모로코	18.7	18.8	15.7	17.7	9.5	89	모잠비크	64.5	63.2	49.2	42.4	32.5																																																																																																											
29	파나마	21.5	18.4	20.1	18.1	9.6	90	앙골라	67.3	66.8	58.3	45.3	32.6																																																																																																											
30	아제르바이잔	-	28.3	27.2	16.7	10.0	91	나이지리아	47.7	47.1	41.0	35.2	32.8																																																																																																											
31	말레이시아	20.4	17.4	15.5	14.6	10.3	92	지부티	56.1	56.1	48.5	46.1	33.2																																																																																																											
32	수리남	18.5	16.5	16.5	13.1	10.4	93	에티오피아	71.7	67.3	58.6	48.5	33.9																																																																																																											
33	파라과이	17.2	15.8	13.5	12.0	10.5	93	파키스탄	43.6	40.9	37.9	38.3	33.9																																																																																																											
34	도미니카공화국	26.3	20.3	19.4	18.1	10.8	95	예멘	44.4	44.4	42.9	42.1	34.2																																																																																																											
35	엘살바도르	22.4	18.6	16.8	13.1	11.1	96	니제르	64.7	62.7	53.0	42.8	34.5																																																																																																											
36	아르메니아	-	21.8	17.4	14.1	11.2	97	아프가니스탄	47.4	55.9	52.5	44.9	35.4																																																																																																											
37	태국	28.4	22.3	17.6	13.6	11.9	98	마다가스카르	44.8	45.1	44.1	44.4	36.3																																																																																																											
38	남아프리카	18.7	16.5	18.6	21.0	12.4	99	아이티	52.1	52.1	42.8	45.4	37.3																																																																																																											
39	가봉	23.2	20.8	18.5	16.2	12.5	100	시에라라온	58.8	56.0	53.5	52.4	38.9																																																																																																											
40	모리셔스	18.2	17.0	16.1	15.2	12.9	101	동티모르	-	-	-	42.7	40.7																																																																																																											
40	투르크메니스탄	-	24.5	22.2	17.5	12.9	102	잠비아	47.0	49.0	50.9	46.7	41.1																																																																																																											
42	알바니아	21.4	19.1	21.1	17.1	13.2	103	차드	65.0	60.6	52.0	53.1	46.4																																																																																																											
43	우즈베키스탄	-	23.7	21.9	18.5	13.3	10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1.9	51.0	51.4	51.0	46.9																																																																																																											
44	온두라스	26.5	24.7	20.4	17.8	13.4	2015년 GHI 지수 5 미만의 국가들 <table border="1"> <thead> <tr> <th>Country</th> <th>'90</th> <th>'95</th> <th>'00</th> <th>'05</th> <th>'15</th> <th>Country</th> <th>'90</th> <th>'95</th> <th>'00</th> <th>'05</th> <th>'15</th> </tr> </thead> <tbody> <tr><td>아르헨티나</td><td>7.7</td><td>7.2</td><td>5.3</td><td>5.0</td><td><5</td><td>에스토니아</td><td>-</td><td>10.0</td><td>6.8</td><td>5.6</td><td><5</td></tr> <tr><td>벨라루스</td><td>-</td><td><5</td><td><5</td><td><5</td><td><5</td><td>라트비아</td><td>-</td><td>7.7</td><td>8.3</td><td>5.4</td><td><5</td></tr> <tr><td>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td><td>-</td><td>10.8</td><td>9.6</td><td>6.8</td><td><5</td><td>리투아니아</td><td>-</td><td>9.4</td><td>6.7</td><td>5.1</td><td><5</td></tr> <tr><td>브라질</td><td>18.2</td><td>15.0</td><td>12.0</td><td>6.7</td><td><5</td><td>몬테네그로</td><td>-</td><td>-</td><td>-</td><td>-</td><td><5</td></tr> <tr><td>칠레</td><td>6.8</td><td><5</td><td><5</td><td><5</td><td><5</td><td>우크라이나</td><td>-</td><td>7.1</td><td>13.4</td><td><5</td><td><5</td></tr> <tr><td>코스타리카</td><td>7.5</td><td>7.0</td><td>6.1</td><td>5.7</td><td><5</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크로아티아</td><td>-</td><td>8.6</td><td>6.1</td><td><5</td><td><5</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쿠바</td><td>8.0</td><td>13.5</td><td>6.1</td><td><5</td><td><5</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Country	'90	'95	'00	'05	'15	Country	'90	'95	'00	'05	'15	아르헨티나	7.7	7.2	5.3	5.0	<5	에스토니아	-	10.0	6.8	5.6	<5	벨라루스	-	<5	<5	<5	<5	라트비아	-	7.7	8.3	5.4	<5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10.8	9.6	6.8	<5	리투아니아	-	9.4	6.7	5.1	<5	브라질	18.2	15.0	12.0	6.7	<5	몬테네그로	-	-	-	-	<5	칠레	6.8	<5	<5	<5	<5	우크라이나	-	7.1	13.4	<5	<5	코스타리카	7.5	7.0	6.1	5.7	<5							크로아티아	-	8.6	6.1	<5	<5							쿠바	8.0	13.5	6.1	<5	<5						
Country	'90	'95	'00	'05	'15	Country							'90	'95	'00	'05	'15																																																																																																							
아르헨티나	7.7	7.2	5.3	5.0	<5	에스토니아							-	10.0	6.8	5.6	<5																																																																																																							
벨라루스	-	<5	<5	<5	<5	라트비아							-	7.7	8.3	5.4	<5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10.8	9.6	6.8	<5	리투아니아							-	9.4	6.7	5.1	<5																																																																																																							
브라질	18.2	15.0	12.0	6.7	<5	몬테네그로							-	-	-	-	<5																																																																																																							
칠레	6.8	<5	<5	<5	<5	우크라이나							-	7.1	13.4	<5	<5																																																																																																							
코스타리카	7.5	7.0	6.1	5.7	<5																																																																																																																			
크로아티아	-	8.6	6.1	<5	<5																																																																																																																			
쿠바	8.0	13.5	6.1	<5	<5																																																																																																																			
45	이집트	20.5	18.9	15.1	13.1	13.5																																																																																																																		
46	니카라과	38.3	32.2	25.6	17.8	13.6																																																																																																																		
47	에콰도르	23.8	19.7	20.2	19.0	14.0																																																																																																																		
48	가이아나	25.4	22.7	19.0	17.3	14.4																																																																																																																		
49	몽고	32.0	39.3	33.1	27.0	14.7																																																																																																																		
49	베트남	44.6	38.8	30.3	24.6	14.7																																																																																																																		
51	가나	45.7	36.8	29.9	23.3	15.5																																																																																																																		
52	볼리비아	38.9	35.1	30.5	27.2	16.9																																																																																																																		
53	필리핀	30.7	28.9	26.2	22.1	20.1																																																																																																																		
54	과테말라	28.8	27.8	28.0	23.9	21.1																																																																																																																		
55	잠비아	36.4	35.4	27.9	26.3	21.5																																																																																																																		
56	베냉	46.1	42.6	38.2	33.3	21.8																																																																																																																		
57	인도네시아	34.8	32.5	25.3	26.5	22.1																																																																																																																		
58	이라크	17.4	24.3	24.9	23.6	22.2																																																																																																																		
58	네팔	44.5	40.3	36.9	31.6	22.2																																																																																																																		
60	캄보디아	46.9	45.2	45.0	29.8	22.6																																																																																																																		
60	모리타니	40.0	36.6	33.5	29.6	22.6																																																																																																																		

--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 존재했던 구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나라들은 참고 연도에 현재의 국경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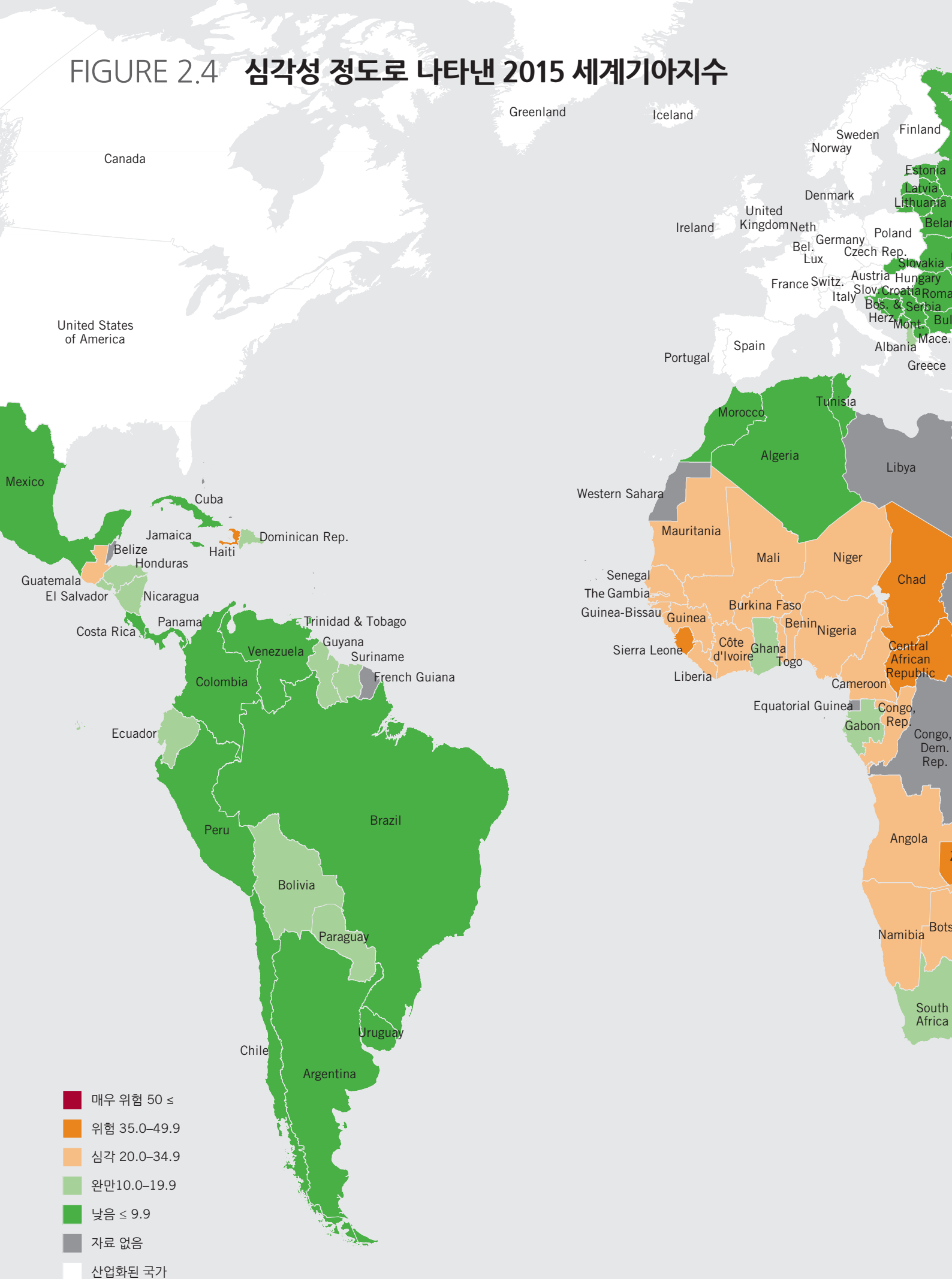
주석: 이 표는 2015년 GHI 지수에 따른 순위입니다. 2015년 GHI 지수가 5 미만인 국가는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들의 지수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2015년 동일한 점수를 가진 국가는 동위로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와 조지아는 같은 19위입니다). 다음 국가는 정보 수집 불능으로 순위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남수단, 리비아, 바레인, 부룬디,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오만, 에리트레아, 카타르, 코모로, 콩고공화국, 파푸아뉴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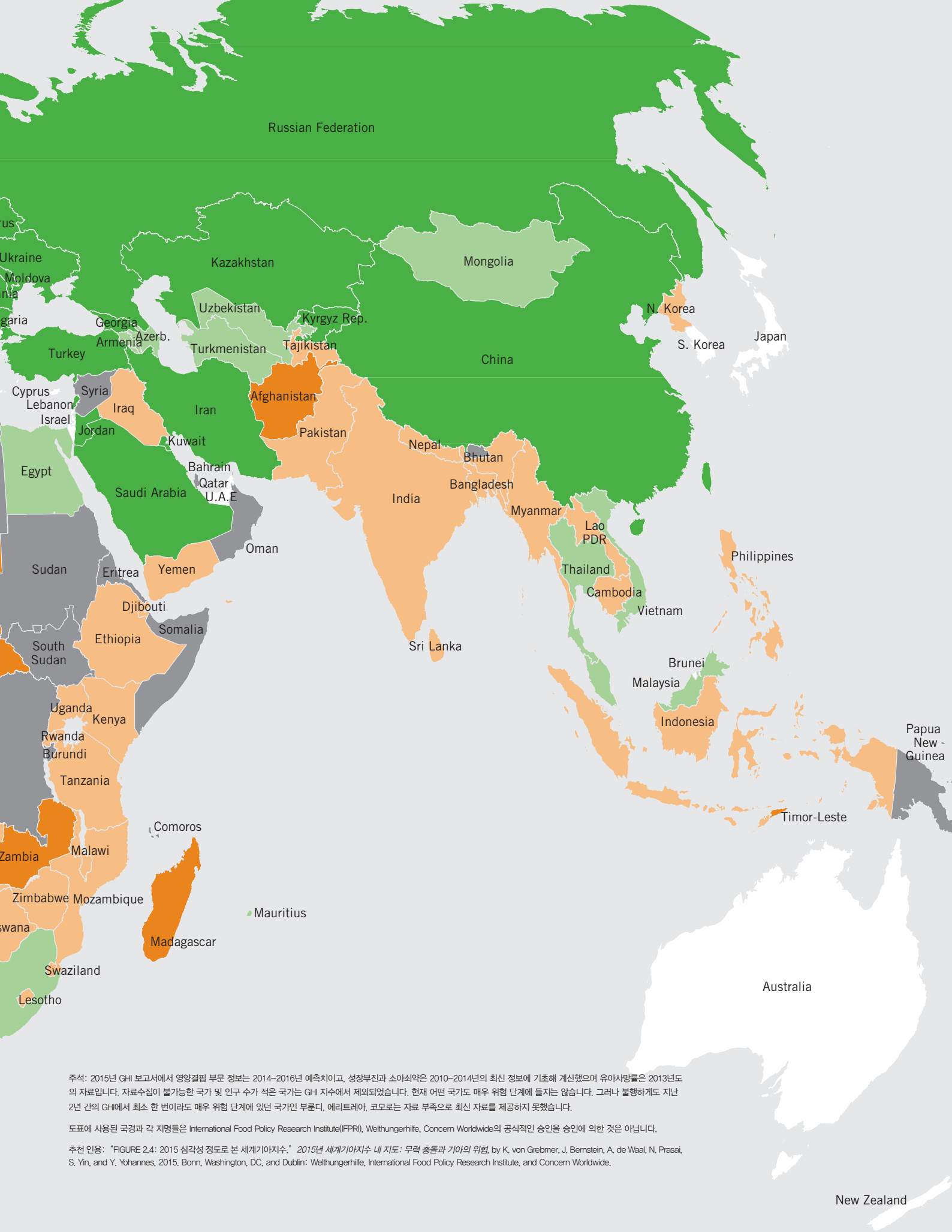
올해의 보고서는 2014년 매우 높은 (위험 또는 매우 위험 단계) GHI 지수들을 기록한 부룬디, 코모로, 에리트레아, 남수단, 수단을 포함한 몇몇 국가를 현재의 영양결핍 상태에 관한 정보수집 불가능으로 인해 GHI 지수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⁵ 덧붙여, 콩고민주공화국은 2011년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GHI 지수를 보였는데, 2011년 이후 정보의 부재 때문에 지수 산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소말리아는 정보 통제로 GHI 지수를 계산하지 못했으나, World Food Programme은 소말리아가 세계에서 식량안보가 가장 불안정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

습니다 (WFP 2015b). 정보의 부족으로 이들 국가의 기아수준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들 국가의 상황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이며 절대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⁵ 2014년 GHI에서는 남수단과 수단이 예전의 '수단'으로 통틀어 계산되었습니다. 2015년 GHI에서는 모든 GHI 부문 지표들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두 나라를 별개의 국가로 보고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FIGURE 2.4 심각성 정도로 나타낸 2015 세계기아지수





주석: 2015년 GHI 보고서에서 영양결핍 부문 정보는 2014~2016년 예측치이고, 성장부진과 소아쇠약은 2010~2014년의 최신 정보에 기초해 계산했으며 유아사망률은 2013년도의 자료입니다.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국가 및 인구 수가 적은 국가는 GHI 지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국가도 매우 위험 단계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2년 간의 GHI에서 최소 한 번이라도 매우 위험 단계에 있던 국가인 부룬디, 에리트레아, 코모로는 자료 부족으로 최신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도표에 사용된 국경과 각 지명들은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Welthungerhilfe, Concern Worldwide의 공식적인 승인을 승인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추천 인용: "FIGURE 2.4: 2015 심각성 정도로 본 세계기아지수." 2015년 세계기아지수 내 지도: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협, by K. von Grebmer, J. Bernstein, A. de Waal, N. Prasai, S. Yin, and Y. Yohannes, 2015, Bonn, Washington, DC, and Dublin: Welthungerhilf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Concern Worldwid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Libyan Red Crescent 직원들이 리비아의 스와오(Swaah)에서 난민들에게 제공할 식량 및 구호물품들을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속되는 내전으로 5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협: 끝이 보이는가?

Alex de Waal

전쟁과 기근은 오랜동안 인류를 위협해 왔습니다. 무력 충돌은 식량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생계를 파괴시키며, 난민들을 야기시킵니다.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분쟁과 기아에 관한 새로운 이슈들과 연구들은 이 위협들이 인류가 안고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보는 등 회의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근과 분쟁으로 야기된 기아가 2030년에는 종식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의 추이들을 살펴보고, 분쟁과 기아에 취약한 인구의 분포를 알아보고, 또 분쟁과 기아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기근의 종식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

오늘날 나타나는 기근이나 극심한 급성기아는 대부분 무력 충돌의 결과입니다. 현재 분쟁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은 17,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CRED 2013). 난민들의 집결은 가능하지만, 실제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87퍼센트는 피난도 가지 못하고 구호기관들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CRED 2013).

표면적으로 평화롭게 보이는 국가에서 폭력의 피해자는 굶주린 사람들보다 드러나지 않지만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폭력범죄, 범죄조직 및 정부 집행기관들의 만행,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범죄의 피해자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합쳐져 폭력 피해자들의 대다수를 이룹니다 (Geneva 선언 2011).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매년 78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폭력이나 그로 인한 악영향으로 사망한다고 추정되는데, 66퍼센트는 무력 충돌이 아닌 범죄들로 희생되며, 27퍼센트는 무력 충돌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고, 단 7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연간 10만 명 중 30명 이상이 폭력으로 희생되는 국가가 14개국에 있는데 이 가운데 단지 6개국만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가이며 나머지 8개국은 -엘살바도르가 높은 수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력 범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폭력들의 영향은 막대하고 심각합니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들은 보다 더 가난하고, 위협에 보다 취약하며, 보다 더 굶주리고 있습니다 (World Bank 2011).

전쟁의 생존자들 또한 다른 주목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서 식량의 안정성 면에서도 취약합니다. 폭력적 행동들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정신적 외상을 줄 뿐 아니라 그들 삶 자체에도 긴 후유증을 남깁니다. 전쟁의 상처와 정신적 외상의 장기적 영향을 연구한 우간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들 생존자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더 굶주리고, 더 아프며, 더 불우하게 산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Mazurana et al. 2014). 이러한 생존자들의 삶을 위해서는 복지와 식량정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주석: 본문에서 적시한 의견들은 저자의 생각입니다. 이는 IFPRI, Welthungerhilfe, Concern Worldwide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적 기근의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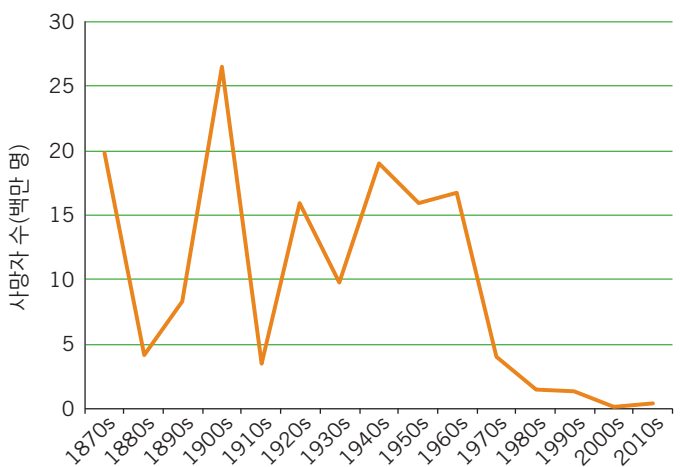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이 처한 특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큰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나치게 현재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오랜기간 이뤄낸 엄청난 변화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폭력의 역사적 감소와 (Pinker 2012), 무력 충돌의 빈도와 치명성의 감소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3) 등 엄청난 업적들은 현재의 사태에 가려 그다지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난 50년간 역사적이며 엄청난 재앙적 기근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의 종식과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기근의 소멸에 가까운 감소에 대해 너무나 쉽게 간과했습니다 (Howe and Devereux 2004).

20세기 중반까지 매 10년마다 수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기아의 복소리는 끊임없었습니다. 1870년에서 2014년 사이, 106개의 기근과 대규모 기아는 각 1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Mallory 1926; Newman 1990; Devereux 2000; Dyson and O Grada 2002).

추이는 매우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FIGURE 3.1과 3.2). 20세기에 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들쭉 날쭉하며, 1900년에서 1909년 10년 사이 2,700만 명의 사망자까지도 기록했습니다; 192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각 1,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1990년대 최소 140만 명의 사망자. 21세기 들어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거의 60만 명입니다.

FIGURE 3.1 187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의 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주석: 각 대기근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출처: World Peace Foundation (2015).

그래프 이면의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근이 187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제국의 시대' 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obsbawm 1989). 기근은 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수천만 명을 죽였고,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그보다 적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가뭄과 토착 생산 체계를 해체하고 고무, 면화 같은 수출 작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제국의 침략, 그리고 약탈에 의한 파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무자비했던 제국주의의 팽창이 종말을 고했으므로써 "빅토리아 말기시대의 대학살 (Late Victorian Holocausts)" 이라고도 불렸던 이 기근들은 끝났습니다 (Davis 2002).

역사학자 Eric Hobsbawm (1996)이 "극단의 시대" 라 불렀던 1차 세계대전에서 냉전까지의 기간 동안 재앙적 기근들은 전체주의에 의해 야기됐습니다: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Maoism). 전쟁 지도자들은 굶주림을 종종 무기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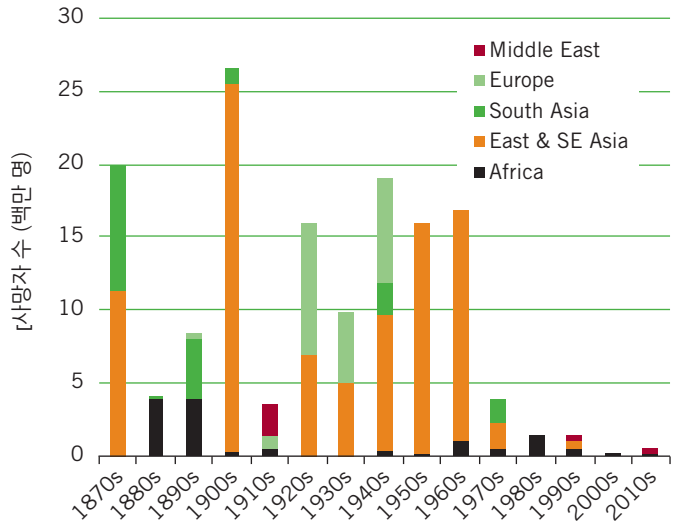
우크라이나와 남러시아에서 1932년에서 1933년에 있었던 강제 집단 농장화-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Holodomor" 라 불리는, 인종청소를 겨냥한 대학살-는 기근을 정부정책에 사용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Conquest 1987). 2,000-3,000만 명에 달하는 벨로루시,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 했던 나치의 Nazi Hunger Plan이 완전히 수행되었더라면 최악의 표본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Lowe 2012). 또한 아시아의 전쟁 기근들은 1936년에서 1945년간 벵골,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수백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정책은 끔찍한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58년에서 1962년 모택동의 대약진정책으로 3,0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Becker 1996). 크메르 루주는 1970년대에 150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을 굶겨 죽도록 했습니다 (Kiernan 2008). 이러한 재앙적 기근들은 "기근을 불러오는" 정권들 즉 전체주의 정권과 몰살전쟁의 종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Marcus 2003). 마지막 공산주의 정권의 대기근은 1983년에서 1985년간 일어난 에티오피아 사태로서 집단 농장화와 기아를 전쟁의 도구로 쓴 정권의 폭정에 가뭄까지 더해져 1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de Waal 1997). 그리고 1996년-1997년, 북한에서는 식량위기로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Goodkind, West, and Johnson 2011).

20세기엔 유럽과 아시아가 기근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FIGURE 3.2). 지난 100년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단 두 곳 -비아프리아와 에티오피아-의 기근으로 각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기근이 유럽에서 몰려나고 아시아에서도 거의 자취를 감추면서 이제 그 위험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근의 하향곡선은 (FIGURE 3.3) 1900년 약 17억에서 현재 73억으로 늘어난 세계인구 상향곡선과 의미심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19세기 학자이자 성직자인 Thomas Malthus 목사가 식량의 공급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비판적인 상황이 되리라 예측한 비판론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세기도 전에 그는 "급격한 인구성장엔 대규모의 피할 수 없는 기근

FIGURE 3.2 1870년대에서 2010년까지 대륙별 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주석: 각 대기근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출처: World Peace Foundation (2015)

이 뒤따를 것이고, 한 번의 대기근으로 인구는 급감하며 지구는 다시 균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저술했었습니다 (Malthus 1798, 140). 실제로는 이 예측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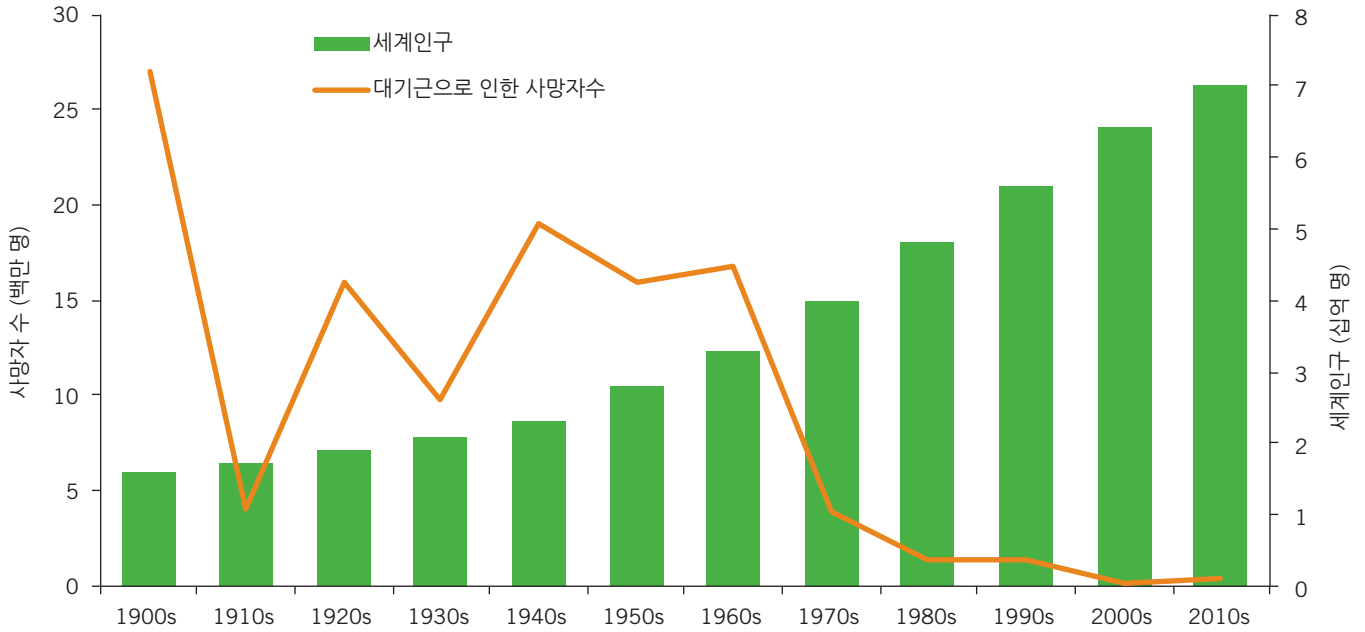
긍정적인 진전 상황

냉전의 종식, 국제인권규범의 채택, 그리고 세계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근을 종식시킬 수 있게 한 주요 요인들입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더 이상 아무 이유없이 자국민을 기아 상태로 방치하거나 국제사회개입을 무조건 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세계적인 부와, 국가간의 상호연결성, 타국의 폭력 사태 등을 지나 쳐버리지 않는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 정보의 공유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침묵 속에서 굶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중요한 이유만으로 기근이 종식되었을까요? 한 때 "기근의 땅" (Mallory 1926)으로 불리었던 중국은 1870년에서 1970년까지 세계 전체 기근 사망자 (World Peace Foundation 2015) 수인 14,900만 명의 반 이상인 8,0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악명 높았던 중국은 현재 반 세기 만에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추세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3년 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CRED)는 "안정화와 인도주의적 노력의 성공으로 인한 낮은 사망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한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CRED 2013, 23-24).

FIGURE 3.3 1900년-2015년 세계 인구성장과 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주석: 각각의 대기근들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출처: US Census Bureau (2013a, 2013b); World Peace Foundation (2015)

경고의 신호들

CRED의 '무력 충돌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 보고서에 의하면 영양실조의 추이는 2008년 이후 세계급성영양실조 (소아쇠약 혹은 영양부족에 의한 부종)가 증가하는 등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승세는 또 다른 우려의 추세와 일치합니다. 우선 전쟁의 감소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Apps 2015; PS21 2015). The Global Think Tank의 21세기를 위한 연구프로젝트(Project for the Study of the 21st Century) 조사에 따르면 분쟁의 숫자 및 분쟁에 관련된 사망자 수는 2006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오랜기간 평균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분쟁에 얽힌 20개 국가들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7,134명에서 163,562명으로 28.7퍼센트 증가했으며 시리아가 일 년간 7만 명 이상의 사망자 수를 내면서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낮은 수치이나, 전쟁과 기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 새로운 기근

오늘날의 기근은 주로 무력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인도주의 비상사태" 로 자연재해들이나 국제 정책들에 의해 악화됩니다 (Keen 2008). 이러한 "새로운 전쟁" (Kaldor 1999)은 정부군과 반군들 뿐 아니라 불법 무장 단체와, 인종별로 이뤄진 민병대, 범죄조직, 용병, 그리고 국제적 세력까지도 포함됩니다. 새로

운 전쟁들은 대부분 내전들이며, 국경을 넘어 사태가 점점 확산되어 생계와 식량 체계를 파괴시켜 사람들을 피난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은 종전의 전쟁들보다 폭력과 기아 부문에서는 비교적 덜 치명적인 경향이 있지만 다루기 힘들고 지속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3).

과거에는 정부와 반군들이 구호를 허락하고 구호 활동가들을 보호해주거나 또는 접근을 막는 등으로 인도적 지원을 통제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적 구호 활동가들은 소규모 전투가 빈발하는 지역의 마을들을 돌아다니기에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식량 원조를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새로운 기근" (Devereux 2007)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근들이 발생하는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단. 2003년에서 2004년, 수단 정부군과 다르푸르(DARFUR)의 여러 반군들과의 무력 충돌 때문에 기아와 질병, 피난 등으로 약 2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US GAO 2006). 2004년 4월 케일락(KEILAK)의 작은 마을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곳을 방문한 UN 팀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표준 한계 수치의 40배가 넘는 사망률을 목격했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는 불행 중 다행히도 제한된 작은 지역 안에서 그쳤습니다.

UN이 경보를 올린 후, 지역사령관에 의한 마을 고립작전은 즉각 중지되었고 구호가 즉시 실행되었습니다.

→ **소말리아**, 2011년에서 2012년의 소말리아의 기근은 금세기 최악의 사태로,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axwell and Majid 2015). 이 사태는 가뭄, 경제적 위기, 전쟁의 재앙들이 겹쳐진 복합적 비상 사태였습니다. 정치는 기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적 구호기관들은 제한적인 접근 허용과 납치와 폭력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통제 영역에서 미국의 대테러 정책과도 싸워야 하는 최악의 조건에 직면했습니다. UN은 기근이 확산될 때까지도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5년에는 IS가 장악한 시리아, 이라크 지역과 야지디(Yazidi) 소수민족의 영토에서 위와 비슷한 요인들로 급성기아가 야기되었습니다.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은 1996년부터 벌어진 전쟁들로 대략 540만 명이 사망한 엄청난 인도주의적 재난을 겪었습니다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08). 이는 공공의료시스템과 여타 인프라 시설의 붕괴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와 식품 시장의 붕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이라크**, 1990년대 이라크 국민들은 사담 후세인의 약탈, 국제사회의 포괄적 제재들, 또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총칭하는 자들에게만 배급했던 시스템 (Alnasrawi 2000) 등의 복합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조합에 의해 고통받았습니다. 25만 명에서 50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UNICEF 1999).

식량이 전쟁의 무기로 쓰였다 하더라도 최근의 총돌들이 반드시 주요기근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타밀 타이거 조직(TAMIL TIGER)에 대한 마지막 공세 때, 스리랑카 정부는 고립되고 굶주린 민간인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최종 승리로 식량과 물자의 공급을 차단하는 BIAFRA스타일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0). 2008년-2009년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포위전에서 이스라엘은 구호품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UN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제한된 구호활동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Cook 2002). 가자지구 사람들의 공핍은 극한으로 치달아 대규모 기아상태에 이르기 직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Ehud Olmert의 자문역인 Dov Weisglass는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다이어트 시키려 했지 굶겨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다” 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Urquhart 2006).

기아가 분쟁을 야기시키는가?

분쟁과 기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014년 GHI에 의하면 식량 안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최근 전쟁에 휘말린 남수단, 동티모르, 부룬디, 수단, 에리트레아, 코모로 입니다 (von Grebmer et al. 2014).^{1,2}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아문제에 있어 지난 25년간 의미심장한 성과를 거둔 반면, 부룬디, 수단, 이라크, 코모로 (모두 분쟁과 관련된 국가임), 그리고 HIV/AIDS의 세계최고 감염국인 스와질란드에서는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Whiteside and Henry 2011).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가나와 르완다에선 기아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적인 심각한 기아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물론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기아-기근의 여부, 만성영양실조, 또는 일반적인 박탈-도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무력 분쟁의 원인에 대한 십여 년 이상의 논쟁 – “탐욕인가 불만인가” 라는 주제로 널리 알려진 논쟁 (Collier and Hoeffler 2004)– 을 종합해보면 World bank의 2011 World Development Report는 분쟁의 원인은 대충 간단히 설명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World Bank 2011). 분쟁은 많은 원인들을 가집니다 (Box 3.1). 여러 경제적 요인들은 국가를 내전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국가를 약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지난 수십 년간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서 갈등과 빈곤, 기아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최신 증거 자료들에 의하면 긍정적 진전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주요기근과 전쟁은 사실상 증식된 것으로 보이나, 지난 5년간 중동지역에서는 무장 폭력과 기아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대륙인 아프리카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분쟁에 휘말린 많은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광물 등의 천연 자원의 착취에 심하게 의존해 온 “자원의 저주” 로 인하여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되었고, 폭력적 경쟁에 몰두합니다 (Kaldor, Karl, and Said 2007). “아프리카 대륙을 움켜쥐는 거대한 손 (The great African land-grab)” (Cotula 2013) –지역 지배계층과 다국적 기업이 수백만의 소지주들로부터 대지를 빼앗는 것–은 아프리카의 불안정과 고충을 야기시켰으며 에티오피아와 시에라리온 같은 국가들에서 비폭력, 폭력적 저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¹ 2014 GHI 지수는 과거 하나의 국가였던 수단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독립한 남수단에 대한 2011-2013년 영양실조 추정수치가 수단과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² 전쟁의 상처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정보부족으로 2015년 지수를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BOX 3.1 분쟁의 다양한 원인들

분쟁의 원인은 복잡적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정치 기관들과 경제 구조들을 포함한 많은 요인에 의해 변화됩니다.(World Bank 2011).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의 광범위한 영역-지역 사회, 생계, 기본 복지를 향한 공격-은 사람들이 왜 폭력에 의지하는가에 관한 공통된 맥락을 드러나게 합니다. 기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어떤 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을 결론지을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단, 아프가니스탄, 예멘, 콜롬비아, 콩고와 같은 나라들은 폭력의 패턴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아주 빠르게 흘러 내리는 큰 산의 급류처럼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연구자들이 특정기간 특정국가의 폭력에 대한 자료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한 후 기 후 패턴, 주가의 추이, 영양실조 수준의 지표-혹은 또 다른 지표-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다면 결국 어떤 연관성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관성들은 희미해집니다 (Buhaug et al. 2014). 그렇지만 종종 연구자들의 이론들이 종합되거나 대중화 되었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부인했던 것을 슬그머니 옆으로 치웁니다.

기아의 파괴적 영향

기아는 인간의 다른 스트레스와는 별개의 고통입니다. 식량과 기근은 감정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자국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정권은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빵 가격의 폭등은 1879년 파리에서 혁명군을 이끌어내게 했습니다 (Grove 1998; Neely 2007). 1943년의 벵골지역의 기근은 굶주림을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영국정권(The British Raj)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Drèze 1991). 올로(Wollo) 지역의 기근은 1973년에서 1974년을 지배한 에티오피아 황제 Haile Selassie의 집권기반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수단 대통령 Jaafar Nimeiri의 가뭄구호의 실패는 그의 정권실각을 가져왔습니다 (Article19 1990; de Waal 1997). 1970년 동벵골지역을 강타한 지난 100년간 최악의 폭풍인 사이클론 블라(Bhola)가 지나간 후 지역에 창궐한 기아와 약탈에 대해 느리고 부적당한 대응을 한 파키스탄 Ayub Khan 정권은 결국 방글라데시 독립운동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Sommer and Mosley 1972; Hossain 2010).

좀 더 최근에는 식량으로 인한 시위로 2008년에 아이티 정권이 무너졌으며, 2011년에는 폭등한 식량가격으로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The Arab Spring of 2011(Brinkman and Hendrix 2011)). 정치적 기반이 약한 국가에선 시위가 정치적 폭력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World Bank 2011). 식량부족 상태에서 시위까지 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된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량안보는 인간의 웰빙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의 근거입니다. 즉,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한 정권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굳건히 버티는

궁지에 몰린 기아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버팁니다. 2008년 사이클론 나지스(Nargis)가 휩쓸고 간 엄청난 피해로 13만8천 명이 익사하고 200만 명이 거처와 마실 물, 기초적 음식물도 없이 버려진 가운데도 미얀마정부는 정국을 뻘뻘히 이어갔습니다 (Guha-Sapir and Vogt 2009). 새로운 헌법을 다루는 국민 총선거 기간동안 증가되는 국제 사회의 이목이 두려운 정부는 2주간이나 입국 및 실질적인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Zami 2005).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정일,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Mengistu Haile Mariam) 과 같은 통치자들은 국민의 고통을 보면서도 모두 굳건히 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탈과 식량배급의 통제를 자신들의 정권 강화에 이용했습니다 (Becker 1996; Natsios 2001; de Waal 1997). 극심한 기아와 약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 정권의 붕괴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된 식량정책은 정치기반의 튼튼한 담보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아가 예전처럼 인류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재해들은 틀림없이 기근이나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반론도 달 수 없습니다 (Box 3.2).

미래를 바라보며

20세기 마지막 수십여 년 동안 우리는 100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하는 재앙적 기근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 기근과 급성기아, 굶주림을 종식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쟁과 관련된 기아를 제거하려면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분쟁을 막거나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쟁은 감소하고, 그 치명성은 약해지지만 폭력적 분쟁의 장기적 추이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3). 그 예로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의 새로운 위협들은 실로 가공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대규모 식량을 신속히 보낼 수 있는 국제 긴급 구호 시스템을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BOX 3.2 지구온난화, 분쟁, 그리고 기아

기후관련 재난의 빈도와 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Guha-Sapir, Hoyois, and Below 2014). 그렇다면 그 영향으로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기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일까요?

집중해서 조망해야 할 곳은 분쟁과 환경의 관계입니다. 기후 변화, 기아, 그리고 분쟁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50년간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자연재해들이 더 자주 파괴적으로 찾아왔어도 전쟁과 기아 수준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국가적 수준에서 다가오는 시대가 “물의 전쟁”으로 얼룩질 것이라 두려워했지만, 인더스(Indus)에서 요르단(Jordan)까지 여러 국가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역에서 우리는 분쟁보다 국가간 협력이 도모되는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Islam and Susskind 2013). 2015년 3월에 있었던 수단, 에티오피아, 이집트의 협약에서 나일강 수자원을 나누는 원칙을 정의한 것은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국지적 단계에서의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자로는 지역별 강수량 양극화가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Raleigh and Kniverton 2012). 강수량에 영향을 받는 가축 가격의 변동과 계절에 따른 이주는 폭력의 위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Maystadt, Calderone, and You 2014; Maystadt and Ecker 2014). 그러나 이 사실을 크게 확장해 추론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은 아직 보편적 지역분쟁의 한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더 큰 전쟁의 전조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기후 변화를 대규모 무력 충돌의 주원인으로 보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둘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매우 비판 받고 있습니다 (Raleigh, Linke, and O’ Loughlin 2014). 최근 연구들은 분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방향성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최근의 연구가 기후와 폭력적 분쟁 사이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에 실패했다” (Buhaug et. Al. 2014 394–395) 라고 지적했습니다.

극단적 기후와 분쟁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장기간 계속된 시리아의 가뭄이 2011년 폭발한 분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을까요? 연구원 Francesca de Châtel은 천연자원을 장기간 부실 관리한 무능한 관료들을 포함한 정부정책들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라 지적합니다. 북동지역에 집중된 댐 건설 및 관개시설 프로젝트는 소규모 농민들을 소외시켰으며 그들을 더 궁핍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de Châtel 2014).

또 다른 문제는 인도적 위기상황과 식량 가격 폭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입니다. 이 사실은 2011년 3월에 촉발된 시위들의 주된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De Châtel은 기후와 분쟁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 원인 연결을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일련의 2011년 분쟁 전개 과정에서 기후변화는 거의 상관없을 뿐 아니라, Assad 정권의 몰락의 원인이 정권 자체의 무능이 아닌 기후변화 라고 주의를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de Châtel 2014, 532). 시리아에 대한 다른 기후연구자들의 조사결과들은 가뭄과 지하수원의 고갈에 대해 자세히 적시해내고, 이들 요인들이 2011년 폭동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주장합니다 (Kelley et al. 2015).

환경 재해들과 분쟁에 관한 관계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London’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에 의하면 “자연재해들은 어떤 분쟁들의 주요 요인들을 줄여주기도 하고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Harris, Keen, and Mitchell 2013). 재해와 또 이를 제때 잘 대응 못 하는 정부의 실패는 기존 사회의 긴장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러한 붕괴는 범죄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위기는 종종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거나 과격분자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해는 기존 세력들의 힘의 균형을 깨거나, 구호물품 유용 가능성을 통해 분쟁들이 일어날 소지를 높여줍니다.

정치적 약속

우리는 국제식량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서방자본주의세계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UN과 EU가 인도적 구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경우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식량 지원의 중추를 담당하는 곡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대테러 법안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경제

적 법적 제재들을 부과하는 등 세계 기아 구호에 관해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거부권 보유자”입니다.

1997년 북한의 기근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미국 신문에선 열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정권이 기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정권의 정책 변화에 대한 조건적 원조는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지원한 식량이 암묵적으로 군용으로 사용된다면 자국민과 미국 모두에게 적대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의견을 내세웠

습니다. 조건적 구호를 반대하는 Andrew Natsios는 이후 2001년에서 2006년간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의 책임자로 역임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가 정권을 국제사회에 대해 개방하는 것을 보았고 어떤 전체주의 국가의 수장도 기근 중이나 기근 후에 실각하는 일이 전혀 없음도 목격했습니다 (Natsios 2001).

Natsios는 George W. Bush 대통령이 “나의 재임기간 중 세계에 기근은 없다”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USAID가 해낸 가장 대단한, 그러나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업적은 2003년 9월 다르푸르(Darfur)에 실행한 선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지역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뉴스에 나오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Natsios는 과거 북한에 지원을 결정할 때와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원을 결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결정은 옳았고 식량 원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수천만 명의 다르푸르(Darfur)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UN과 강력한 정부들은 대규모 식량 위기들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결정은 언제나 정치적이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가 절박한 기근에 직면했을 때, 미국정부는 알샤바브(al-Shabab)조직으로 인해 지원을 미루다가 이후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할 정도로 기근이 만연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Maxwell and Majid 2015).

그 이면에는 UN요원들과 NGO기관들은 미국의 대테러정책을 준수하느라 알샤바브(al-Shabab)조직이 장악한 지역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테러집단을 지원하는 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이 뒤늦게 소말리아에 기근 비상을 선포한 뒤에서야 미국은 구호작업을 시작했고, 테러집단 지원을 엄금하는 정책의 예외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정치적 배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기근을 막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강력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이해가 다를지라도 원조가 필요한 국가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재앙적인 기근의 종식과 대기근의 예측할 수 있는 종말이 가까워졌음은 엄청난 성과지만, 급성기아와 만성기아의 정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경제적 성장, 보다 나은 식량정책, 분쟁의 해결,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등의 모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 각각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충돌이 감소하거나 종식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많은 수의 보이지 않는 폭력의 희생자들이 보다 나은 인도적 구호와 복지정책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나마 얻은 결실들은 결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PARTNERS



Who we are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는 개발도상국의 식량 수요의 충족을 위한 대안전략과 정책을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가난을 줄이고 기아의 퇴치와 영양실조의 지속적

감소를 위한 정책들에 근거 자료를 제공해 온 지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우리의 연구는 6개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의 보장, 건강한 식량 체계의 촉진, 시장과 무역의 개선, 농업의 선진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관련 기관들과 운영 방식의 강화

Our vision

우리의 비전은 기아와 영양실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Who we are

1968년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Concern Worldwide는 국제인도주의단체로, 극심한 빈곤의 종식과 빈곤으로 인한 고통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최빈국 27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영국, 미국, 대한민국에 사무실을 두고 2,900명 이상의 헌신적이며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우리의 미션은 세계의 극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기아와 맞서 싸우며 스스로 성장하여 그들 스스로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Concern Worldwide는 빈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 및 국제파트너들과 협력해 그들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장기적인 개발사업에 관여하며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 교육 및 옹호 활동에 이르기까지 빈곤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Our vision

우리의 비전은 어느 누구도 가난, 공포 또는 탄압으로 고통 받지 않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온당한 생활수준을 누리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균등한 기회와 선택이 있는 세상, 모두가 존엄한 삶을 충분히 누리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Who we are

Welthungerhilfe는 독일에서 가장 큰 비정부 구호단체 중 하나입니다. 1962년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의 산하 조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Freedom from Hunger Campaign'의 독일 지부로서 기아 퇴치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 하나였습니다.

What we do

우리는 기아와 빈곤과 싸웁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급구호부터 장기 개발협력 사업에 이르는 통합된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2014년 41개국에 385개의 해외사업을 지원했습니다.

How we work

우리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지의 협력 조직들과 함께 기초부터 착실하게 체계를 강화하여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 정책에 관해 자문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아와 빈곤을 이끄는 조건들을 바꾸기 위한 방법입니다.

Our vision

우리의 비전은 기아와 빈곤에 대한 걱정없이 존엄성과 정의를 갖고 스스로 결정한 삶을 살도록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10 YEARS OF TRACKING WORLD HUNGER

2006년부터 세계기아지수는 세계, 지역, 및 국가별로 기아의 현황을 보고해왔습니다.



기아의 위협
아프가니스탄과 시에라리온
두 나라의 분쟁 후 사례연구



기아의 위협 2007
급성 영양실조와 만성 기아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



기아의 위협 2008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



2009 세계기아지수
국제금융위기와 성적 불평등



2010 세계기아지수
어린이 영양실조의 위기



2011 세계기아지수
과도한 식량 가격 변동성 및
급등락 길들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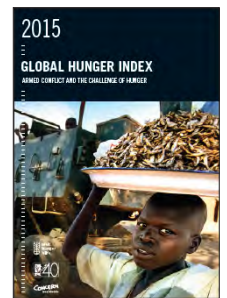
2012 세계기아지수
토지, 수자원, 에너지 부족 속,
지속적인 식량안보의 보장



2013년 세계기아지수
식량과 영양 안정을 이루기
위한 대응력 키르기



2014년 세계기아지수
숨겨진 기아의 위협



2015년 세계기아지수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협

**2015년 세계기아지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ifpri.org/ghi/2015 를 방문하세요.**

또한, 한국어로 된 자료를 원하시면
www.concern.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HI 자료에는 연구자와 개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터랙티브한 지도
-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파일
- 세계기아지수 LOD(Linked Open Data)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사용과 분석을 위해, RDF(Resource Description Format)과
OWL(Web Ontology Language) 모두 가능합니다.
- 세계기아지수 SPARQL Endpoint 제공

모바일 기기에서 세계기아지수 보기

Google Books, Google Play, Amazon, iTunes를 통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MPRINT

Deutsche Welthungerhilfe e.V.

Friedrich-Ebert-Straße 1
53173 Bonn, Germany
Tel. +49 228-2288-0
Fax +49 228-2288-333
www.welthungerhilfe.de

Secretary General and Chairperson:

Dr. Till Wahnbaeck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2033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1002, USA
Tel. +1 202-862-5600
Fax +1 202-467-4439
www.ifpri.org

Director General:

Dr. Shenggen Fan

Concern Worldwide

52-55 Lower Camden Street
Dublin 2, Ireland
Tel. +353 1-417-7700
Fax +353 1-475-7362
www.concern.net

Chief Executive:

Dominic MacSorley

Editors: Andrea Sonntag (Senior Advisor Right to Food and Nutrition Policy, Welthungerhilfe), Larissa Neubauer (Policy and External Relations, Welthungerhilfe), Jennifer Thompson (Advocacy Officer for Hunger, Concern Worldwide), Olive Towey (Head of Advocacy, Ireland & EU, Concern Worldwide), Klaus von Grebmer (Research Fellow Emeritus, IFPRI), Sandra Yin (Senior Editor, IFPRI)

Recommended citation: K. von Grebmer, J. Bernstein, A. de Waal, N. Prasai, S. Yin, and Y. Yohannes. 2015. *2015 세계기아지수: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험* Bonn, Washington, DC, and Dublin: Welthungerhilf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Concern Worldwide.

Design: David Popham (Designer, IFPRI)

Design development: muelhausmoers corporate communications gmbh, Cologne, Germany

Printing:

YGS

Authors: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Klaus von Grebmer (Research Fellow Emeritus), Jill Bernstein (Independent Consultant), Nilam Prasai (Data Curator), Sandra Yin (Senior Editor), Yisehac Yohannes (Research Analyst); World Peace Foundation/Tufts University: Alex de Waal (Executive Director/Research Professor)

Translations:

Translated Concern Worldwide Korea with permission from IFPRI, Concern Worldwide, and Welthungerhilfe. Concern Worldwide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quality and accuracy of the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original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version, the original edition will prevail
www.ifpri.org/ghi/2015

Ordering number:

460-9494

ISBN:

978-0-89629-969-6

DOI:

<http://dx.doi.org/10.2499/9780896299696>

Photo credits:

표지 사진 Panos/Sven Torfinn, 2003; page 2: Welthungerhilfe/Imke Lass, 2015; page 6: Welthungerhilfe/Roland Brockmann, 2014; page 12: Panos/Hossein Fatemi, 2013; page 22: Reuters/Esam Al-Fetori, 2011.

Acknowledgments:

세계기아지수 산출 과정에서 업데이트된 공식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해주신 Doris Wiesmann (Independent Consultant)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내, 외부에서 공식을 검토해 주신 분들, Hans Konrad Biesalski (Professor of Biological Chemistry and Nutritional Medicine); Marie Ruel (Director of Poverty, Health, and Nutrition Division, IFPRI); Harold Alderman (Senior Research Fellow, IFPRI)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역사적 세계인구평가추산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Kelvin Pollard (Senior Demographer, Population Reference Bureau)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보고서를 검토해주신 Gershon Feder가 이끄는 IFPRI의 Peer Review Committee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Disclaimer:

본 보고서에 사용된 경계선과 지명, 지도에 표시된 명칭들은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Welthungerhilfe, Concern Worldwide의 공식 승인이나 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 GHI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ifpri.org/ghi/2015



Food Right Now is an inter-
national education campaign
run by Alliance2015.

Civil Society
Participant



MILANO 2015
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Deutsche Welthungerhilfe e.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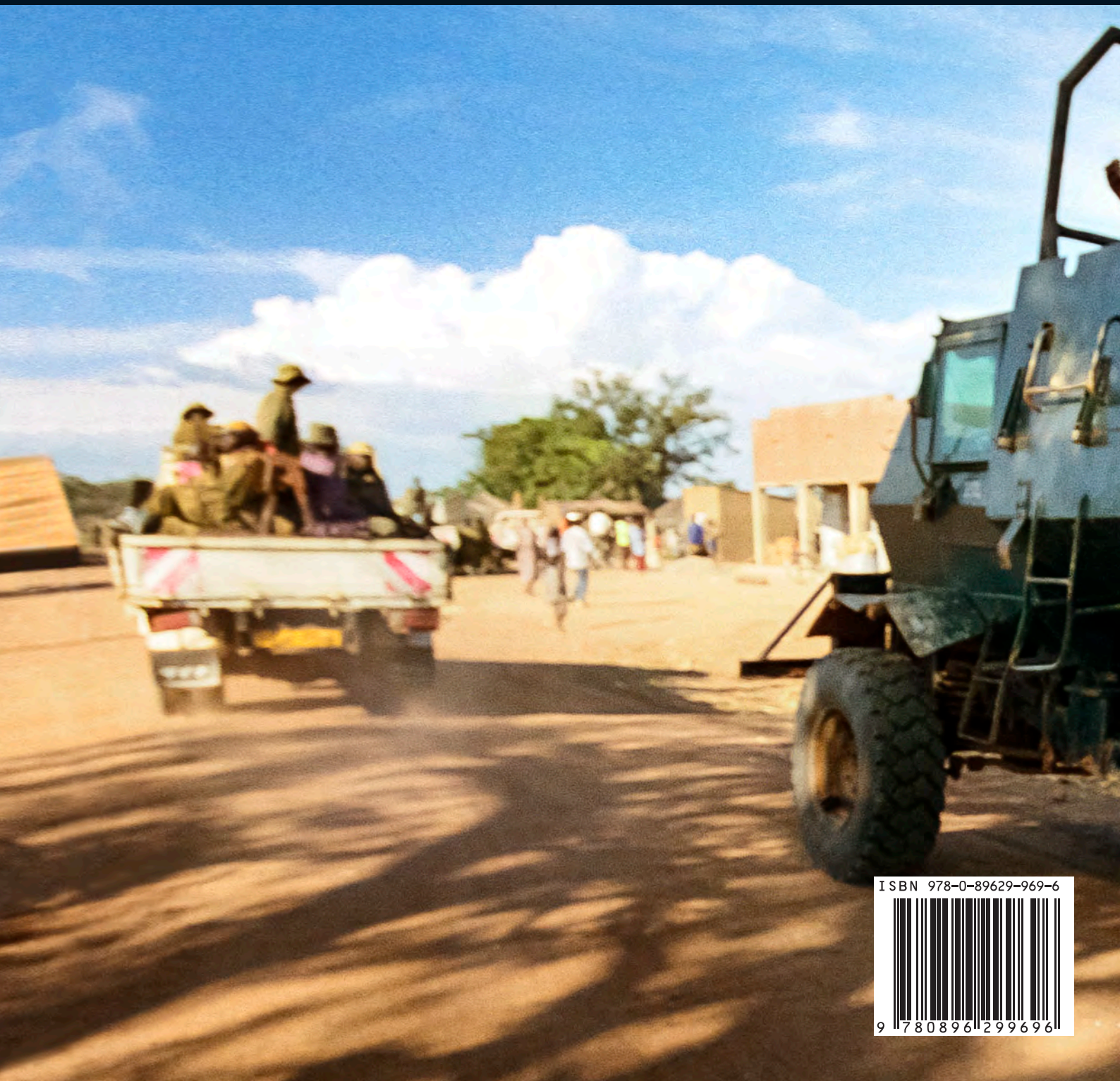
Friedrich-Ebert-Straße 1
53173 Bonn, Germany
Tel. +49 228-2288-0
Fax +49 228-2288-333
www.welthungerhilfe.de
Member of Alliance2015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33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1002, USA
Tel. +1 202-862-5600
Fax +1 202-467-4439
www.ifpri.org

Concern Worldwide

52-55 Lower Camden Street
Dublin 2, Ireland
Tel. +353 1-417-7700
Fax +353 1-475-7362
www.concern.net
Member of Alliance2015



ISBN 978-0-89629-969-6



9 780896 299696